

전국노동자문학회의 결성과
『노동자문예운동』의 집단창작 노동시 연구

허요한*

차 례

- | | |
|--|------------------------------------|
| 1. 서론: 노동자문학회와 ‘조직화’의 위상 | 3. 집단낭송 단편서사시의 양식 실험과 대중화론의 조직화 논리 |
| 2. 1987년 전후 전국노동자문학회의 결성의 맥락과 ‘전국’이라는 상징 | 4. 단편서사시의 집체극 양식으로의 변용과 집합적 연행 |
| | 5. 결론 |

국문초록

이 글은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 전국노동자문학회의 대표자회의(전국노동자문학회)의 결성과 『노동자문예운동』의 집단창작 노동시 양식 실험을 조명하여, 노동계급의 문화적 주체 형성 과정과 정치·예술의 결합 방식을 규명한다. 이를 위해 1987년 전후 노동운동과 노동문학에서 ‘전국’이라는 상징이 지녔던 변혁적 의미를 살펴보고 그것이 양식적으로 구현된 양상을 고찰한다. 특히 각 지역 노동자문학회가 전국 단위 연대체로 나아간 결정적 계기인 1989년 ‘제1회 전국노동자문학동아리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선임연구원

대동제'의 추진 과정을 추적하고, 그들의 운동적 지향과 결합된 집단창작 노동시의 양식 실험을 조명한다. 이를 위해 전국노동자문학회의 『노동자문예운동』(1990)에 수록된 마산노동자 참글동아리의 집단낭송 단편 서사시 「현해탄 푸른 물결을 건너」와 단편서사시를 집체극으로 변용한 부천노동자문학회의 「천만개의 불꽃으로」를 분석한다. 이 작품들은 몽타주적 구성과 다양한 예술 양식을 결합하여 노동자의 삶과 투쟁을 전형화한 선동적 미학을 완성하였다. 이러한 문학 양식의 확장과 탈상품화 시도는 단순한 표현을 넘어 노동자 대중이 현장에서 변혁적 주체와 연대 조직을 실제로 구현해낸 과정이었으며, 이를 통해 전국노동자문학회는 민중이 문학의 생산·유통·향유 전 과정을 생취하는 '문학의 민주주의'를 성취해냈다.

주제어: 노동자문예운동, 노동자문학회, 전국노동자문학회, 노동시, 조직화

1. 서론: 노동자문학회와 '조직화'의 위상

이 글은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 전국노동자문학회 대표자회의 (이하 전국노동자문학회)의 문예운동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노동계급의 문화적 주체 형성 과정을 고찰하고, 정치(노조 활동)와 예술(문예 실천)의 결합 방식을 규명한다. 또한 그 문학사적 의의를 문학의 민주주의와 연동되었던 노동운동의 조직화의 맥락에서 밝힌다. 이를 위해 1987년 전후 노동운동과 노동문학에서 '전국'이라는 상징이 지녔던 변혁적 의미를 살펴보고 그것이 양식적으로 구현된 양상을 고찰한다. 특히 노동운동이 전국 단위로 조직화되는 현상과 맞물려 노동자문학회 역시 전국적 연대조직을 구축한 바를 '제1회 전국노동자문학동아리 대동제'의 추진 과정을 통해 살펴본다. 그리고 전국노동자문학회의 『노동자문예운동』

(1990)에 수록된 집단창작 노동시의 양식 실험을 분석한다.

노동자문학회에 관한 논의는 1970년대 이래 지속된 노동자 글쓰기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며, 2010년대 이후 활성화된 ‘아래로부터의 글쓰기’ 연구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사회학·역사학 연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심화되었고, 민주노조 운동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급 형성론, 민중문화사, 학생운동·노학연대·변혁운동사를 포괄했다. 그중 노동자 문학회에 대한 논의는 천정환,¹⁾ 장성규,²⁾ 김영희,³⁾ 박지영⁴⁾의 연구에서 구체화되었다. 천정환은 노동자문학회의 성격을 아래로부터의 글쓰기, 서발턴 글쓰기로 의미화했으며, 장성규는 프롤레타리아의 밤과 문학의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조명하였다. 김영희와 박지영은 본고의 연구 대상인 전국노동자문학회의 시를 집중적으로 논하였다.

먼저 천정환은 1970-80년대 민중의 자기 재현의 양상을 검토하는 일은 “문학사의 구조 및 주체를 사고하는 인식론에 대한 발본적 물음”⁵⁾이라는 논의의 틀을 구성했다. 그에 의하면 아직 쓰이지 않은 아래로부터의 문학사를 서술한다는 의미 속에는 “인식과 제도 속에 자연화되어 있거나, 또는 ‘종언’을 맞은 근대문학의 너머에 있는 ‘문학적인 것’의 역사”⁶⁾를 가시화한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본고에서 노동자문학회를 문학사에 기입하고 의미화하는 일이 “(근대)문학 너머의”, “포스트-문학사”⁷⁾의 기획과 맞닿는다는 점에서 주요한 시각을 제공한다.

장성규의 연구는 조직화라는 관점에서 본고의 시각에 주요한 참조점

-
- 1) 천정환, 「그 많던 ‘외치는 돌멩이’들은 어디로 갔을까」, 『역사비평』 106호, 역사비평사, 2014, 162-203쪽.
 - 2) 장성규, 『문학의 민주주의 : 구로노동자문학회 소사(小史)』, 역락, 2025.
 - 3) 김영희, 「90년대 문학의 밤과 프롤레타리아의 시 : 일상/투쟁의 서사와 훼손된 육체를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27권 3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19, 85-117쪽.
 - 4) 박지영, 「‘현장’의 노래, ‘광장’의 시 : 1980~90년대 초반 노동자문예운동과 시쓰기」, 『상허학보』 50권, 상허학회, 2017, 147-193쪽.
 - 5) 천정환(2014), 228쪽.
 - 6) 위의 책, 229쪽.
 - 7) 위의 책, 229쪽.

을 제공한다. 현장 운동으로서 노동문학의 부흥을 이끈 노동자문학회의 문예실천은 기성 문학의 위계질서에 균열을 내고 민중(문학)을 주체로 한 ‘문학의 민주주의’ 사례로서 주목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장성규는 구로노동자문학회의 “문학의 민주주의”를 논하며 “노동자 글쓰기 모임과 문화 소집단의 조직화, 이들의 문화적 특성에 근거한 새로운 양식의 체계화”가 1980년대 민중적 민족문학론의 중요한 기조였음을 밝혔다. 아울러 문학창작의 주체로서 민중이 등장한 것뿐만 아니라 “고정된 텍스트 개념 자체를 구체적인 운동의 매커니즘 속에서 역동적인 것으로 재구축하는 작업”을 통해 새로운 글쓰기 주체의 형성이 규명된다고 하였다.⁸⁾ 본고는 여기서 문학의 민주주의 실천과 조직화 메커니즘의 연동에 착안하여, 문학과 노조운동을 결합한 전국노동자문학회의 운동·문예실천·창작방법의 조직화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고의 연구 대상인 전국노동자문학회의 시를 집중적으로 논한 김영희와 박지영의 논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영희는 노동자문학회의 글쓰기에서 노동, 삶, 글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들이 생활 현장과 노동 현장, 투쟁 현장을 재현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상과 개인, 내면의 언어가 1980년대의 시적 토대에서 발아했으며 1990년대에도 집단과 역사적인 것이 노동자에 의해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노동자문학회 글쓰기의 의의를 밝힌 것이었다. 또한 김영희는 노동자문학회의 창작 활동이 시 장르에 집중되었다는 점에 착목해, 『노동해방문학』과 『작업화 굶은 자국을 찍으며』에 실린 시들의 서사를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통해 그는 노동자 글쓰기의 의의를 인간적 삶의 쟁취, 일상과 투쟁의 서사를 통한 노동자의 자기 인식으로 규명하고, 이 과정이 노동자의 육체성을 통해 드러난다고 하였다.⁹⁾ 김영희의 논의는 전국노동자문학회의 첫 번째 시 창작 작품집을 분석함으로써 이후

8) 장성규, 앞의 책, 44쪽.

9) 김영희, 앞의 책, 93-111쪽.

발간된 다수의 작품집에 대한 논의의 기틀을 마련했다. 본고는 이를 바탕으로 전국노동자문학회의 회원들의 개별 창작물을 넘어 조직화된 집단 창작의 사례를 분석하여 논의를 확장하고자 한다.

박지영의 연구는 노동자 글쓰기를 운동의 관점에서 파악하며 전국노동자문학회의 집단창작을 시의 탈상품화와 관련하여 논했다는 점에서 본고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박지영은 다수의 지역에서 발생한 노동자문학회 열풍이 1987년 이후 노동운동의 활성화와 연관된다고 밝히며, 벽보와 노보에 적합한 시 장르가 노동자 글쓰기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생활과 노동과정뿐만 아니라 노조 활동과 투쟁의 재현이 노동자 시쓰기의 특징이고 노동자들의 조직적 투쟁 과정이 시쓰기의 존재론적 성찰로 이어졌으며, 노동자문학회 활동을 노조 활동과 연계하는 시각을 강조했다.¹⁰⁾ 또한 박지영은 문학의 자본주의적 생산·유통을 문제 삼은 민족문학주체논쟁을 통해, 집단창작이 자본주의적 상품으로서 개인적 문학의 창작자-독자의 이분법과 지식인 중심성을 극복하고, 민중 스스로 문학을 창작·향유하는 방법론으로서 위상을 획득했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1987년 이후 농민과 노동자들의 실제 창작 사례가 누적되며 집단창작이 “현장과 민중 주체 중심의 창작”¹¹⁾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밝혔다. 본고 역시 문학의 탈상품화로서 집단창작의 시도와 그 주체인 노동자문학회의 결성 맥락을 조명하는 한편, 그것이 1980년대 민중시 담론과 1987년 노동자대투쟁에서 비롯된 노동시의 양식적 성과임을 보다 주목하려 한다.

노동자문학회는 1980년대 초반 노동자·농민이 문학운동의 주체로 제기된 이래¹²⁾ 1980년대 후반 민족문학주체논쟁¹³⁾을 통해 활성화된 운동

10) 박지영, 앞의 책, 152쪽, 160쪽.

11) 위의 책, 170-171쪽.

12) 좌담, 「80년대 詩,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신경림 외, 『詩人』1호, 시인사, 1983, 12-28쪽; 좌담, 「바람직한 문학운동을 위하여—운동개념으로서의 문학」, 고은 외, 『詩人』1호, 시인사, 1984, 12-33쪽.

으로서의 문학, 문학의 대중화, 탈자본주의적 유통구조 등의 담론과 결부된 문예운동의 실천적 사례였다. 특히 1970년대부터 지속돼 온 지식인-노동자의 연대활동을 넘어, 1987년 이후 노동자 스스로가 현장에서 문학조직을 구성하고 전국적 연대체로 만든 과정은 시문학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사건이었다. 이는 노동자의 문예창작 역량과 문예사업 조직화 역량이 더불어 증대된 결과였다. 또한 노동자문학회에서 문학 활동과 노조 활동이 노동자 조직화라는 목적하에 하나의 운동으로서 수행됐기에 가능했던 것이기도 했다.

더불어 1980년대부터 지속돼 온 지식인들의 ‘운동으로서의 문학’, ‘민중’ 담론 또한 문학의 대중화·조직화의 중요한 기반이었다. 1980년대 초반 채광석을 위시한 민중적 민족문학론은 지식인 계층 전문 문인의 소시민적 관념성을 극복하고 노동자 민중이 문학의 주체로서 해방을 형상화할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채광석은 “노동자문학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토대로 공동창작집단을 형성”¹⁴⁾하여 개별창작의 소시민성을 극복하고 노동문학과 매체통합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즉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자문학회의의 활황은 민중문학 운동의 결과이자 성과이기도 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전국노동자문학회의의 집단창작은 문학의 탈상품화를 통해 노동자 민중의 문학적 역량을 증대시

13) 민족문학주체논쟁은 1987~1988년에 전개된 민중문학 논쟁이다. 이는 창작 주체(누가 써야 하는가), 미학(무엇이 민중문학인가), 창작 방법론(어떻게 써야 하는가)을 다룬 것으로, 노동자대투쟁 이후 발전하는 사회변혁운동 속에서 문학의 위치를 가늠하고자 했다. 허민은 이를 “사회과학자들에 의해 전개된 사회구성체 논쟁의 문학적 버전”이라 해석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이는 변혁의 방법론으로서 한국 사회의 주요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기본모순(계급모순)과 주요모순(민족모순)을 제시하고 대응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논쟁이었다. 조선회, 「민족문학주체논쟁」정한용 편, 『민족문학 주체논쟁』, 청하, 1989, 359-367쪽, 허민, 「민주화 이행기 한국소설의 서사구조 재편 양상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112쪽.

14) 채광석, 「소시민적 민족문학에서 민중적 민족문학으로」, 『채광석 전집5-민중적 민중문학론』, 풀빛, 1989, 220-221쪽.

키는 수행이자, 민중이 문학의 주체가 되는 방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를 논하고자 본고는 노동자문학회의 전국단위 연대가 형성되는 과정을 ‘제1회 전국노동자문학동아리 대동제’를 중심으로 추적한다. 그리고 노동자문학회가 이전의 민중문학·노동문학 담론을 어떻게 흡수해 문학의 대중화·조직화의 실천 방향을 설정했는지 밝힌다. 또한 그와 결합된 새로운 문예 양식의 실험에 주목하기 위해, 전국노동자문학회의 『노동자문예운동』(1990)에 수록된 집단창작 단편서사시와 집체극을 분석하고 그 낭송과 장르 변환을 조명한다. 본고의 2장에서는 1987년 전후 전국노동자문학회의 결성 맥락과 ‘전국’이라는 상징을 고찰한다. 3장과 4장에서는 단편서사시의 집단창작과 집단낭송, 집체극으로의 변환이 ‘전국’이라는 상징의 조직화 열망과 의지를 담아내는 양식 실험이었음을 논한다. 나아가 그러한 실험이 민중시 양식의 발전된 한 사례이자 반자본주의적 문예운동으로서 지니는 문학사적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2. 1987년 전후 전국노동자문학회 결성의 맥락과 ‘전국’이라는 상징

이 장에서는 1980년대 변혁운동에서 ‘전국’ 단위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된 맥락을 검토하고, 전국노동자문학회가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결성된 과정을 밝힌다. 이를 통해 전국노동자문학회의 ‘전국’이라는 상징이 공동체적 문학의 유통 구조 확보 및 사회 변혁을 위한 조직화의 열망과 밀접하게 연동되었음을 조명한다. 이때 ‘전국’이라는 상징은 지역적 역량을 연결하고 한국의 정치 구조 자체를 재배치하겠다는 시대적 욕망의 기표였다.

1985년 구로동맹파업은 노동운동의 경제주의를 비판하고 대중 정치 조직의 결성을 주장하는 서울운동노동연합(이하 서노련)과 같은 일련의

급진주의적 흐름을 만들어냈다. 이때 레닌의 『무엇을 할 것인가』는 전위의 대중 정치 조직의 방법론이자 참고문헌으로 활용되었다. 이 책의 문제의식 중 하나였던 선전 매체로서 정치신문의 강조는 1987년 이후 변혁운동 단체 기관지들의 발행으로 이어졌다.¹⁵⁾ 구로동맹파업의 효과로 나타난 대중 정치 조직이라는 화두는 이후 1986~1987년에 이르러 변혁운동 단체들의 운동 노선에서 논쟁적 주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 논쟁의 중점은 전위조직과 대중조직의 관계 및 대중의 정치조직화 방법론에 있었고, 전위조직론에서 ‘즉각적인 전국적 전위조직론’으로의 노선변경이 주장되며 전국적 정치신문에 대한 요청이 제기되기도 했다. 레닌주의적 전위를 표방하는 입장에서 대중의 정치조직화 방법론으로서 전국적 정치신문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었고, 이는 1989년 『전국노동자신문』과 『노동해방문학』, 『노동자문화통신』과 같은 매체운동으로 이어졌다. 정파적 성격에 따라 『녹두꽃』, 『문학예술운동』과 같은 문예운동적 매체들의 출판도 이어졌다.¹⁶⁾ 지역에서 결성된 노동자문화회들은 바로 이러한 운동 매체들에 시를 투고하면서 자신들의 존재를 선언했다.¹⁷⁾

‘전국’은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욕망하는 시대적 기표로서 이 시기에 다발적으로 등장했다. 먼저 1987년 직선제 개헌을 둘러싼 운동 속에서,

-
- 15) 허요한, 『박노해 민중시의 전개와 전위성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57-160쪽.
- 16) 이러한 매체는 각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 배포되는 것을 넘어 대학가의 인문사회과학서점을 통해 유통되면서 활성화되었다. 1980년대 초반 소위 학림사건으로 불리는 전국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과 전국민주노동자운동연맹(전민노련)의 형성에 학생운동가 이선근과 광민사 사장 이태복이 주도적 역할을 하기도 했다. 저항적 출판물의 유통과 관련해 인문사회과학서점의 출판운동을 다룬 바로는 다음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천정환, 「1980년대 인문사회과학서점의 역할과 문화사적 위상」, 『기억과 전망』 53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2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한국민주화운동사 3』, 돌베개, 2010, 192쪽.
- 17) 허요한, 「잡지 『노동해방문학』의 노동자문화회 시 연구」, 『반교어문연구』 71호, 반교어문학회, 2025, 211-218쪽.

그리고 6월 항쟁과 7, 8, 9월 노동자대투쟁을 거치면서, ‘전국’ 단위를 지향하는 이름의 단체들이 연이어 등장했다. 학계에서는 1986년 7월 21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가 결성되었고, 학생운동권에서는 1987년 5월 8일 서울지역대학생대표자 협의회 발족을 시작으로 지역별 학생연대조직이 만들어진 후, 8월 18일 충남대에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창립총회가 열렸다. 노동계에서는 현대엔진 노조 탄압에 대한 대응을 계기로 1988년 6월 7일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가 결성되었고, 이 단체는 1989년 1월 21일 민족민주운동 상설 공동 투쟁체인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창설에도 기여했다. 이후 1990년에 창립한 전노협은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와 전국노협의 전통을 계승하고자 한 민주노조운동의 전국조직이었다. 전노협은 “노조운동의 민주성, 연대성, 그리고 계급성을 전투적인 투쟁으로 실현”¹⁸⁾하는 전통을 이어받으려 했으며, 이는 “국가와 자본의 지배전략에 저항”¹⁹⁾하고 “자본주의의 억압적 체제를 완전하게 극복”²⁰⁾하고자 한 것이었다. 또한 도시·빈민 운동계에서 1988년 10월에 전국노점상연합회가 결성되고, 1989년 11월 11일 서울시철거민협의회와 전국노점상연합회의 주도하에 전국빈민연합이 결성되었다. 농민단체와 교원단체에서도 각각 1988년 10월 전국농민단체협의회, 1989년 5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결성되는 등 1987년의 열기는 ‘전국’의 상징하에 운동의 대중화에 대한 조직적 실천들로 나타났다.

아울러 1980년대의 통일운동은 민족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단위의 조직적 상상력을 요구하는 또 하나의 축이었고,²¹⁾ 1987년 9월 12일 자유실천문인협의회를 확대 개편한 민족문학작가회의 역시 민족통일 노

18) 김영수, 김원 유경순, 정경원, 『전노협 1990-1995』, 한내, 2013, 102쪽.

19) 위의 책, 104쪽.

20) 위의 책, 104쪽.

21) 1984년 결성된 민중민주운동협의회(민민협)와 민주통일국민회의는 1985년 2·12 총선을 계기로 통합하여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 결성했다. 민통련은 1987년 발전적 해소를 거쳐 1989년 1월 21일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건설에 참여하게 된다.

선과 민족문학 건설을 기치로 창립되었다.²²⁾ 이는 “시민적 민족문학의 시대에서 ‘민중적 민족문학의 기층민중적 장르 확산’ 시대를 거쳐 ‘노동문학과 지역문학’의 시대”²³⁾로 이행하는 과정에 문단이 발맞춘 것이기도 했다. 민족문학작가회의의 분단 극복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상상력은 이 시기의 ‘전국’에 대한 상상력과 맞닿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 시기 문예운동에서 전국에 대한 상상력은 대중화론으로 표현되었다. 이영미는 1984년 이래 창작 주체와 장르의 문제를 민중적 관점에서 논하기 시작한 일련의 논자들(채광석, 김도연, 김명인, 김진경, 신승엽)에 의해 형성된 민중적 민족문학 담론을 6월 항쟁 시기의 ‘예술대중화’ 논의로 정리했다. 이는 1970~1980년대에 등장한 노동자 수기와 노동시, 문인·농민의 공동창작 시 등 활발한 민중문학 창작의 흐름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민족문학주체논쟁으로 불리기도 했던 예술대중화론은 노동자대투쟁 이후 정파적 입장에 따라 ‘노동해방문학’, ‘노동해방문예’, ‘민족해방운동론’으로 분화되었다. 그러나 문예운동을 민중·생산대중의 현장과 연결한다는 ‘대중화’ 전략은 이 시기의 공통된 입장이었다.²⁴⁾ 전국노동자문학회 역시 운동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노동문학

22) 민족문학작가회의, 「창간사-문학과 역사의 동시적 역량을 담당해 나갈 주체」, 『민족문학회보』 창간호, 1987, 4쪽.

23) 박수연, 「개체들의 공동체 : 한국문학과 진보」, 『어문연구』 122권, 어문연구학회, 2024, 416쪽.

24) 이영미는 식민지 시기 카프의 대중화론, 해방 이후 문예대중화 운동, 1987년 예술대중화론, 민족해방문학 진영과 노동자문화예술운동의 문예대중화론(노동자계급 문예대중화론)을 고찰하며 ‘대중화’ 용례를 검토한 바 있다. 또한 김명인의 「대중문학운동론」을 참고해 문예대중화라는 말이 위로부터의 어감을 가지므로 아래로부터의 대중화를 의미하는 ‘대중문학운동’이라는 용어가 제시되었다고 밝히며, ‘문학운동의 대중화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노동자문학회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노동자문학회는 문예대중화라는 말이 문예의 전문적 부분을 대중화시킨다는 시각을 함의했다고 언급하며, 자신들의 운동을 ‘대중 주체의 문예운동’, 혹은 ‘대중화’로 표현했다. 본고는 이러한 맥락을 고려해 민중문학(문화)의 관점에서 노동자문학회의 형성과 전국단위 조직화를 주목하면서, 1987년 후반~1990년대 초반의 운동의 조직화와 확산이라는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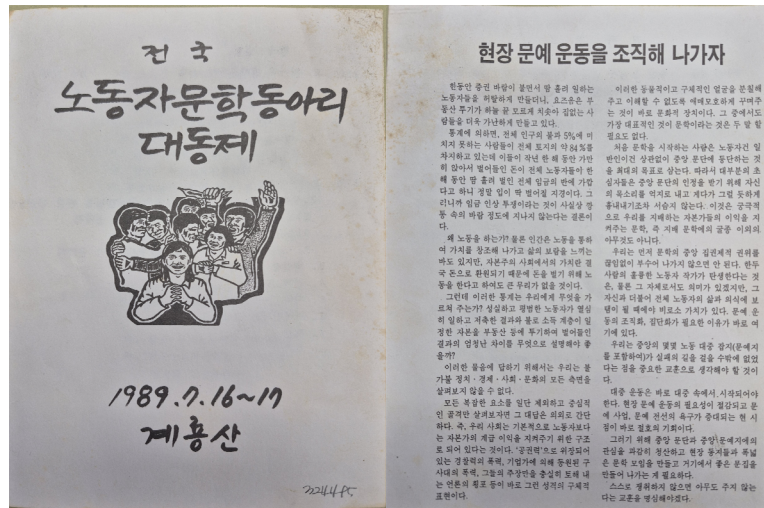
대중화의 문제의식을 견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일련의 사회적 변화에 대한 열기는 변혁적 정치의 대중화를 둘러싼 실천으로 이어졌고, 이는 조직의 결성으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1987년을 전후하여 지역단위에서 활동하며 자신들의 문학적 위치를 스스로 선언했던²⁵⁾ 각 지역 노동자문학회는 1989년에 이르러 전국 단위 연대체를 결성했다. 연대체 결성의 출발은 ‘전국노동자문학동아리 대동제’를 통해 이루어졌다. 노동자들의 ‘문학의 밤’ 행사는 지역노동자문학회 결성의 중요한 계기였고, 지역의 노동자-활동가들은 행사를 통해 주변의 노동자들을 모으고 조직화하는 방식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다.²⁶⁾ 그렇기에 대동제라는 전국 단위 행사에 대한 상상이 가능했다.

에서 ‘대중화’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대중화론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3장에서 다룰 것이다. 이영미, 「한국 근·현대 예술운동의 대중화론, 그 쟁점과 허실」, 『민족문화연구』 61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3, 415-439쪽; 편집부 엮음, 『노동자문예운동』, 개마고원, 1990, 23쪽, 210쪽.

25) 허요한, 「잡지 『노동해방문학』의 노동자문학회 시 연구」, 『반교어문연구』 71호, 반교어문학회, 2025, 211-218쪽.

26) 일례로, 마산창원노동자동아리 참글과 부산노동자문학회의 조직화에서 ‘문학의 밤’ 행사가 중요했다는 사실은 장계성과 변수경의 좌담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고지’와 ‘연필 한자루’를 통합하면서 제1기 때 나왔던 ‘문학의 밤’ 행사를 해 보자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일단 뭐든지 일을 벌리고 보자, 터뜨리면 사람들은 모인다’는 식으로 밀어붙였죠.”(마창, 장계성), “이러한 원칙이 정해지고 나서 막바로 ‘노동자문학의 밤’을 준비하여 88년 8월 20일에 행사를 가졌습니다.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어 치른 행사로는 부산지역에서 최초여서 많은 노동자들이 모였습니다. 즉석 낭송도 해 가면서 뜨거운 열기 속에 치뤄진 이 행사는 사실상 부산노문 창립의 핵심적 부분입니다. 이는 부산노문이 몇몇 사람으로 조직을 꾸린 다음 학습을 통해, 조직의 내실을 기해 나간게 아니고, 바로 대중속에서 조직을 결성해 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부산, 변수경). 「기획좌담-지역노동자문학회의 현실과 극복과제」, 편집부 엮음, 앞의 책, 12-15쪽.



<그림 1> 전국노동자문학동아리 대동제 팸플릿 일부²⁷⁾

그간 ‘제1회 전국노동자문학동아리 대동제’는 신문 기사²⁸⁾와 『노동자 문예운동』에 실린 구로노동자문학회의 글 「노동자문학이란 무엇인가」를 통해 그 존재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런데 본고에서 새로 발굴한 팸플릿은 전국노동자문학동아리 대동제의 추진 과정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하게 한다.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팸플릿의 1면에는 <전국노동자문학동아리 대동제>라는 표제와 함께 일정과 장소(1989.7.16~17, 계룡산)가 적혀 있다. 실제 대동제가 진행된 장소는 대전의 가톨릭농민회관으로 추정된다.²⁹⁾ 팸플릿에 기록된 행사 일정에 따르면, 1989년 7월 16일에

27) 오픈아카이브 자료의 인용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지정한 표기법을 따른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00324495, [미상], 한국가톨릭농민회, [1989.07.16], ‘전국 노동자문학동아리 대동제’

28) 조선희, 「고단하고 지친 노동현장 분노 담아」, 『한겨레』, 1989.12.7.

29) 대동제와 관련된 구로노동자문학회의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기가 확인된다. “이 글은 지난해 7월 가톨릭 농민회관에서 열렸던 ‘전국노동자문학동아리대동제’에서 행해진 문학토론의 기초발제이다.” 구로노동자문학회, 「노동자문학이

각 지역 참가동아리 및 참관단체 소개, 조 편성, 대동놀이, 문학의 밤이 이어졌고, 17일에 주제 토론, 백일장, 행사 평가회, 회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주제 토론은 지역 노동자문학회에서 주제별 기조 발표를 준비한 후 그에 대한 토론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주제는 구로노동자문학회의 ‘노동자문학이란 무엇인가’, 광주글맥의 ‘노동자문학이 걸어온 길’, 부산 노동자문학회의 ‘노동자문학이 가야 할 길’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중 구로노동자문학회의 「노동자문학이란 무엇인가」는 1990년 발간된 『노동자문예운동』에 실렸는데, 이는 당시 행사에서 이루어진 문학 토론의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글이다. 「노동자문학이란 무엇인가」는 노동자문학의 창작 주체, 창작 내용, 창작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①노동자문학은 노동자가 핵심 주체이지만 계급적 출신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아니다. ②노동자문학은 억압과 착취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진실성 때문에 노동자뿐만 아니라 모순된 사회 구조 속에서 고통받는 모든 사람에게 읽힐 수 있다. ③노동자문학은 모순된 현실과 일터, 가정, 고통받는 조국의 노동자와 전세계 노동자의 삶에 관심을 갖는다. 따라서 노동자문학은 노동자의 일상을 포함하며 모순을 깨부수는 투쟁 과정도 포함한다. ④노동자문학은 현실을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써야 하며 그 현실을 깨뜨리고 나가려는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이러한 미학을 현실주의라 부르며, 이는 노동자의 세계관을 표현하는 방법론이다.

이에 따르면 노동자 생활의 한 부분으로 쓰여진 글, 노동자의 체험과 느낌, 꿈과 희망을 현실주의적 원칙으로 읊긴 글은 모두 노동자문학이다.³⁰⁾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노동자문학회는 전국적 연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기존의 제도적 문학관을 탈피해 인간해방과 노동해방 사상을 바탕으로 한 현실주의적 관점의 문학을 창작·유통하고자 했고, 문학을

란 무엇인가」, 편집부 엮음, 앞의 책, 39쪽.

30) 위의 책, 36-38쪽.

“현실 변혁의 주요한 무기”³¹⁾로 삼고자 했다.

아울러 팸플릿에 실린 경과보고 항목을 보면, 대동제는 1989년 4월경 부산노동자문학회와 광주 글맥의 자료 교환에서 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 5월 25일경 부산노동자문학회에서 「전국 노동자문학모임 단합대회에 관한 제안서」를 글맥에 보냈고, 6월 10일에는 대동제를 위한 예비모임을 가진 것이 파악된다. 이때 글맥과 부산노동자문학회는 향후 구로노동자문학회 및 마산·창원노동자문학회와 준비위를 구성하기로 논의했다. 이후 6월 25일 노동자문학동아리 전국 모임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어 “전국노동자문학동아리대동제”의 일정과 장소를 확정했다.

팸플릿의 후면에는 “현장 문예 운동을 조직해 나가자”라는 슬로건을 제목으로 내건 글이 실렸다. 이 글은 자본주의 국가 억압 기구인 공권력의 실상을 가리는 이데올로기적 문화 기능을 비판하면서 기성 문학이 그러한 문화적 장치로서 기능해왔다고 지적한다. 또한 그 핵심에 문단 권력이 있음을 밝히고, 문학을 시작하는 이들이 중앙 문단에 등단하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삼는 현실을 지배 문학에 대한 굴종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한다. 이 글에 의하면 현 사회는 자본가계급에 의해 지배받는 사회이므로 그 체계 안에서 이데올로기적으로 기능하는 문학의 중앙 집권적 권위를 부수는 것이 노동자 문학의 목표가 된다. 이때 한두 명의 뛰어난 노동자 작가로는 전체 노동자의 삶과 의식을 변화시킬 수 없기에 문예운동의 조직화, 집단화가 필요하다고 이 글은 역설한다. 또한 중앙의 노동대중잡지들이 실패한 요인으로 지역 현장 문예운동의 역할 부재를 지적하면서, 대중운동은 대중 속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현장의 문학 모임을 만들고 문집을 만들어 나가는 문예운동의 수행성은 운동의 대중화 담론이 노동자들에 의해 주체적으로 구현되고 실천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전국노동자문학회의 결성이 기존의 진보적·변혁적 문예운동 담론들

31) 위의 책, 39쪽.

과의 관계 속에서 진행된 것이라는 근거는 더 있다. 전국노동자문학회의 이름으로 발간된 『노동자문예운동』에서, 각 지역의 노동자문학회는 ‘노동자문예조직’의 정의, 위상, 역할, 과제 등을 스스로 정립하며 전국적 연대체의 상상이 변혁적 계급운동의 대중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둘째, 노동자문학은 문학의 한 조류, 한 부분이 아닌 힘차고 거대한 문학 전체의 본령이므로 인간해방, 노동해방의 사상을 노동자적 관점에서 표현해 낸 모든 문학을 포함시킵니다.

셋째, 노동자문학은 현실주의라는 미학으로 우리가 처한 모든 현실을 형상화, 전형화해내고 문학을 현실 변혁의 주요한 무기로 삼습니다. (구로노동자문학회, 「노동자문학이란무엇인가」)³²⁾(강조: 인용자)

하지만 노동자문학이론의 부족, 문학작품에서의 열세, 노동운동에서의 문학운동역할에 대한 인식부족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노동현장에 얽매어 있는 노동자문학가들이 조직을 건설하고 확장하는 데의 어려움은 너무 크다.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위해 필연적으로 대두된 것이 전국적인 연대이다. 노동자문학은 집단주의와 공동체 의식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노동자문학이 공동주의로 나아가는 과정이고 결과라면 전국적인 연대는 더욱 절실하다.(김영호, 부산노동자문학회, 「노동자문학집단의 나아갈 길」)³³⁾(강조: 인용자)

80년대 말부터 노동자문학의 본격적인 대중화에 획기적 전환점으로 자리매김될 만한 움직임들이 나타났다. 그것은 바로 생산과 향유에 있어 궁극적으로 개인 차원을 벗어날 수 없었던 기존의 문학을 극복하고 문학행위를 집단주의, 공동주의에 기초하여 접근해 가려는 노동자문학회의 출현이었다.(편집후기)³⁴⁾(강조: 인용자)

32) 위의 책, 39쪽.

33) 위의 책, 89-90쪽.

34) 위의 책, 210쪽.

인용한 글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 전국노동자문학회는 인간해방, 노동해방을 위해 현실주의(리얼리즘)의 미학적 방법으로 문학을 창작하며 문학을 현실 변혁의 무기로 삼는다고 주장하면서 출발했다. 문학을 통해 노동자계급의 현장 조직을 추진했던 각 지역 노동자문학회는 지역단위 조직화의 한계를 전국적 연대로 극복하고자 했다. 이는 노동문학 이론과 작품의 양적 부족, 노동운동에서 문학의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과 같은 상황 속에서 지역의 노동현장의 업무를 병행해야 하는 노동자문학가들이 조직을 확장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인식에서부터 나왔다. 노동자문학회는 집단주의, 공동주의, 공동체의식에서 문학의 수행성의 근거를 찾으며 문학의 생산과 향유의 개인적 차원을 벗어나려 한 노동문학의 대중화 흐름에 자신들의 출현을 위치시켰고, 전국적 연대체로서 이를 사회 전반으로 세력화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노동자문학회의 자기 역사화는 부산노동자문학회 김영수의 글을 보면 더 명확히 드러난다. 그는 노동문학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다음과 같이 네 시기로 분류했다. ①식민지시기: 카프 작가 중심으로 볼셰비키적 관점을 가졌으나 반제투쟁의식이 미비했음 ②미군정기: 조선문학건설본부, 조선프로레타리아문학동맹과 같이 카프를 계승한 문학운동 등장 ③1970년대 후반~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전: 노동자 스스로 현장 속에서 유통 구조와 재생산 구조를 창출하기 시작(일기, 생활수기, 시, 소설 등 광범위한 노동자 글쓰기의 등장과 석정남, 유동우, 송효순, 박영근, 장남수, 박노해, 최명자, 정명자, 김해화, 김기홍 등 개별 노동자 창작자들의 성과) ④1987년 6월 항쟁과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운동의 대중적 기초 위에 노동자문학이 질적으로 비약(백진기와 김명인의 민중적 민족문학론과 이에 대한 비판인 조정환의 민주주의 민족문학론(이후 노동해방문학론)의 이론투쟁 과정과 연동). 김영수는 이러한 노동문학의 역사적 흐름 위에 1988년 무렵의 노동자문학회의 결성을 위치시켰다.³⁵⁾ 그리고 “전국에 산재한 노동자문학회들”이 “전국노동자문학동아

리대동제'를 공동개최함으로써 전국적 연대 내지 단일대오의 조직화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³⁶⁾고 밝혔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 사회를 변혁하고자 하는 운동 과정으로서의 글쓰기를 상징한 새로운 문학 개념은 노동자문학회의 자기 역사화 서사에도 등장했다. 그 과정에서 ‘전국’이라는 상징은 ‘사회변혁’을 위한 노동자 조직화를 의미하였다. 또한 1970년대 이후 노동자가 스스로 문학의 유통 및 재생산 구조를 창출하기 시작했다는 언급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국노동자문학회는 민권운동과 함께 등장한 문학의 근대적 개인과 상품유통의 개념을 넘어서고자 했다. 그리고 사회주의적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운동사의 발전 과정으로 문학사를 재해석하여, 바로 그 결실에 자신들을 위치시킴으로써 조직 결성의 의의를 찾고자 했다.³⁷⁾

35) 김영수, 「노동자문학의 역사적 전개과정」, 위의 책, 40-52쪽.

36) 위의 책, 52쪽.

37) 이는 전국노동자문학회 10주년 기념 대동제에서 발표된 송경동의 글 「역사는 한사코 나아간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 글에서 그는 전국노동자문학회가 민족문학 진영과 민족민주운동 진영의 운동의 성과를 이어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활동 주체들의 다양한 이념적 편차에도 불구하고 지역 노동자 대중 속에서 민족·민중문학을 전파하고 전체 변혁운동에 부문조직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해왔다고 회고하였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문학교실, 노동자문학의 밤, 현장문학반 건설, 도서 대출 사업, 노보 편집지원, 투쟁사업장 성원들과의 공동창작, 소식지 및 문집 발간 사업 등이 활발히 진행되었음을 밝혔다. 특히 노동자문학교실의 경우, 이는 전근대적 도제식 문학교육이나 근대적 제도 교육의 기능공 양성식이 아닌, 생활 근거지의 열린공간에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고 하였다. 이 지점에서 노동자문학회는 문학 생산의 유통 구조를 민주화했다는 평가를 스스로 내리기도 했다. 송경동, 「역사는 한사코 나아간다」, 전국노동자문학회 대표자회의 엮음, 『역사는 한사코 나아간다』, 갈무리, 1998, 16쪽.

3. 집단낭송 단편서사시의 양식 실험과 대중화론의 조직화 논리

이 장에서는 『노동자문예운동』에 실린 전국노동자문학회의 집단창작 시 양식인 단편서사시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전국노동자문학회의 양식 실험이 1980년대에 이루어진 노동문학의 역사적 맥락화 및 재구성 과 맞물려 있으며, 집단낭송을 위한 단편서사시 양식이 전국적인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현장성과 집합성을 보인다는 점을 밝힌다. 이로써 2장에서 담론적 차원에서 검토한 노동자 조직화(대중화)의 문학적 실천 양상을 단편서사시라는 양식 실험을 통해 논하고자 한다.

각 지역 노동자문학회 문집이나 회보를 제외하고 전국노동자문학회의 이름으로 출간된 작품집은 『작업화 굵은 자국을 찍으며』(1989), 『역사는 한사코 나아간다』(1989), 『노동자문예운동』(1990), 『너를 만나고 싶다』(1991), 『채송화 할아버지』(1994), 『전태일열사30주기기념시집-너는 나의 나라』(2000) 등이 있다. 그중 『작업화 굵은 자국을 찍으며』, 『역사는 한사코 나아간다』, 『너를 만나고 싶다』, 『전태일열사30주기기념시집-너는 나의 나라』는 시 모음집이고 『채송화 할아버지』는 소설 모음집이다. 이와 달리 『노동자문예운동』은 노동자문학회의 대담집, 투쟁기, 생활글, 콩트, 대본, 시 등이 실려 있어 다매체성을 특징으로 한다. 전국노동자문학회의 다른 작품집과 달리 『노동자문예운동』에 수록된 시들은 양식 실험, 장르 변환을 보여주는데, 이 또한 다매체적 구성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간 전국노동자문학회 시 연구는 시 모음집 위주로 진행되어, 『노동자문예운동』에 실린 시 작품들에 대한 논의는 전무했고, 이로 인해 전국노동자문학회가 시도한 시의 양식 실험이 조명되지 못했다. 따라서 본고는 『노동자문예운동』에 수록된 집단창작 시를 노동시의 양식 실험의 측면에서 주목하여 분석한다. 이는 시의 리얼리즘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져 온 전형성뿐만 아니라, 장르 변환을 통한 시적 양식의 확장, 문어체적 고백을 벗어난 다성적 구어체의 활용, 현장 구호와 목소리의 몽타주적 삽입, 행사의 활용을 통한 공동체적 수행성 등을 주목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양식들은 앞 장에서 전국노동자문학회의 담론을 통해 확인했듯이, 노동해방을 기치로 한 노동자의 투쟁 과정을 시로 표현하고 선전·선동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 맥락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동자문예운동』에 실린 시 작품이 집단창작의 결과물로서 위와 같은 양식적 특성을 보이는 원인은 집단창작의 고유한 목적성 때문이다. 박지영이 밝혔듯이 사회주의권에서 당문학을 실현하고자 도입된 집단창작은 “혁명 과정에서 벌어지는 여러 혁명적 상황을 신속하게 인민들에게 전달하기”³⁸⁾ 위한 형식으로, 창작의 속도와 창작물의 규모(대작의 생산)를 염두에 둔 제작 방법이라 할 수 있다. 1980년대 집단창작은 전문작가와 농민·노동자의 협업, 대학 운동권 학생들의 집단창작 등으로 이어졌고, 1989년에 이르러서는 노동자문학회의 결성과 창작 역량의 증대로 노동자문학회의 집단창작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다.³⁹⁾

동시에 집단창작은 그 제작 과정 자체가 창작 주체의 인식의 확장과 운동의 실천 과정으로 경험되기 때문에, 노동자-문예활동가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행위이기도 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노동자문학회의 집단창작물의 내용은 자신들의 노동환경과 노동조합 투쟁 행위를 재구성하는 의미화 과정이자, 그 내용을 향후의 집단적 투쟁에 반복 활용함으로써 투쟁의 의례를 만드는 것이기도 했다. 즉 이들의 집단창작물

38) 박지영, 앞의 책, 173쪽.

39) 박지영은 노동자문학회의 집단창작 결과물로 부천노동자문학회의 「아들아, 이젠 말하리라」, 「천만개의 불꽃으로」, 성남노동자문학회의 「우리 가자! 승리의 깃발 휘날리는 그날까지」, 부산노동자문학회의 「시월의 불길로 일어서라, 백만 부산노동자계급이여」, 「사상가는 길」을 주목하여 분석한 바 있다. 그는 집단창작 시가 총체성의 구현, 전형의 창조, 다성적 주체의 화자의 등장을 형식적 특징으로 한다고 논했다. 박지영, 위의 책, 174-180쪽.

은 그 내용과 형식이 분리되지 않고 반복을 통해 유기적으로 재구성되었던 것이다. 이는 활자를 벗어나 행사나 투쟁 현장의 구호로서 집단 낭송되거나 재연되는 투쟁의 목적성으로 인해 시의 형식 자체가 확장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그 사례로 『노동자문예운동』에 실린 마산 노동자 참글동아리의 「현해탄 푸른 물결을 건너」를 분석하고자 한다.

1.

“이윤을 쫓아서라면 지옥까지도 간다, 무덤까지도 파들어 간다”는
다국적 기업, 지금 그들의 횡포가 난무하는 이 강산.

보라.

부천의 한국피코, 금산전자

성남의 에프코아코리아, 안양의 티엔디, 이리의 아세아스와니

마산의 한국 TC, 수미다, 동경전자, 시티즌을 비롯한

이 땅의 수많은 외자기업 노동자들이

일터를 잃고 바람찬 겨울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이 비통한 현실을,

공단 가로등 불빛에도 피묻은 절규가 살아 외치는 저 비애의 눈빛,

절망의 눈빛, 분노의 눈빛 그리고 이 투쟁의 눈빛을!

8.

오랜 현장생활에 부황 뜬 얼굴이지만

너무 착해빠져 정에 약하고 진실만을 사랑했기에

관리자의 구박에도 굴하지 않던 미자언니.

항상 내 곁에서 나의 고통까지, 우리 모두의 고통까지

온몸으로 받아들였던 미자언니가 바로 그날,

노조결성 발기인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히 우리들 앞에 섰을 때

나는 놀라움과 함께

우리의 외침이 너무나도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중략)

10.

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노조 때문에 오더가 감소하고 외주도 줄고
있습니다. 회사가 정말 어려운 실정이니 사원 여러분께서는 회사가 다

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회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은 인원을 과감히 줄이는 방법뿐입니다.

(중략)

13.

자금부족은 심각한 상태가 되어 급료·상여금 지불이 안되고 재료구입도 불가능한 상황이며 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중지통지를 받아 사업계속은 불가능한 사태를 맞게 되었쓰니다. 심히 유감이지만 10월 14일부로 전사원의 해고를 통지하므니다. 퇴직금·급여·상여금에 대해서는 사내에 보유한 제품·재료·기계를 매각해서 노나 가지기를 바라므니다. 사정을 이해하고 적극 협력을 바라므니다.

-일본에서 대표이사 쿠시노 고이찌

(중략)

15.

조합원 동지 여러분. 본사에서 오더를 중국으로 빼돌려 놓고서 오다가 감소되어 경영이 어렵다는 핑계로 우리의 일터를 도산시키고 팩시밀리 한 장으로 우리의 목줄을 끊어놓는 이 횡포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27조에 보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해고시, 사전에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아무런 법적 절차조차 밟지 않은 불법 부당해고를 단행했습니다. 더구나 인원정리시 60일전에 통보하여 노조와 합의토록 되어 있는 단체협약까지 무시하고, 심지어는 임금과 퇴직금까지 떼어먹고 본사로 달아나 버렸지 않습니까? 설상가상으로 수출관리소에서는 잔인하게도 어제 밤부터 한파까지 불어와 우리의 일터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지 여러분! 우리 절대 흔들리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삽시다!

(중략)

17.

총무과 점거농성에 이어 수출관리소, 노동부 그리고 일본영사관 등을 항의 방문하며 ‘집단해고 철회’, ‘범법자 쿠시노 소환’을 요구했지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항상 더 큰 멸시와 폭력뿐이었다.

“외국인업체에게는 자유로운 투자와 자유로운 철수가 보장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회사에서 경영이 어려워 집단해고시킨 것을 우리더러 어쩌란 말이에요?” 정부당국은 한국노동자가 죽든 말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외자기업만 감싸고 돌았다.

“이 신성한 영사관까지 찾아와 도대체 뭐하는 짓이요?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니 어서들 가요! 당장 나가지 않으면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겠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전경·백골단이 들이닥쳐 우리들의 머리카를 잡아채고 군화발로 사정없이 걷어차며 강제연행해 갔다. 이 과정에서 모두들 온몸에 시퍼렇게 멍이 들고 조합원 한 사람은 갈비뼈에 금이 가는 중상을 입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이 나라 경찰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경찰인가!

마산노동자 참글동아리, 「현해탄 푸른 물결을 건너」 일부40)

인용한 시는 마산노동자 참글동아리의 「현해탄 푸른 물결을 건너」의 일부로, 한국 수미다전기 노동자들의 출전결단식까지의 상황⁴¹⁾을 단편 서사시 양식으로 쓴 작품이다. 한국 수미다전기의 본사는 마산 수출 자유지역에 입주한 일본 수미다전기로, 코일을 비롯한 전기 기계용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였다. 1970년대에 한국은 이 회사의 해외 주력 공장이

40) 마산노동자 참글동아리, 「현해탄 푸른 물결을 건너」, 편집부 엮음, 앞의 책, 195-206쪽.

41) 「현해탄 푸른 물결을 건너」의 말미에는 다음과 같은 부기가 실려 있다. “한국 수미다전기 노동자들은 지난 11월 15일, 출전결단식을 끝내고 현해탄 푸른 물결을 건너갔습니다. 오늘도 말도 통하지 않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먼 타국땅에서 본사 사장과 직접 담판을 벌이며 치열하게 싸워 나가고 있습니다. 마산수출자유지역 2공구, 빼앗긴 일터에 남아 집단해고 철회 투쟁 65일째 맞는 수미다 노동자들은 일본영사관 항의 방문에 이어, 지난 13일부터 민주당 백찬기 의원 사무실을 점거했으며 오늘도 가열차게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마산노동자 참글동아리, 위의 책, 208쪽.

었으나, 이는 여성 노동자들의 저임금 고용과 노동력 착취를 토대로 했다. 1987년 이후 한국에서 노동운동이 활성화되자 회사는 1988년부터 중국과 말레이시아로 생산 기능을 이전했다. 1989년 10월 14일에는 본사에서 회사 폐업과 노동자 전원 해고를 팩스로 통보하는 등 외자기업의 노동착취와 부당해고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한국 수미다 노조의 대표단은 회사에 단체 교섭을 요청하며 일본 원정 투쟁을 실행했다. 8개월에 걸친 항의 끝에 1990년 6월 8일 노사는 합의에 이르게 된다. 이 투쟁은 한일 노동자와 시민사회 간 풀뿌리 연대로 기억되며⁴²⁾ 한국 여성 노동운동의 주요한 사례로 기록되었다.⁴³⁾

인용한 시는 이와 같은 한국 수미다전기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 현실과 저항, 원정 투쟁의 결의를 총 20장의 단편서사시로 재현하였다. 이 시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수출 자유지역의 외국계 기업 공장에 입사했으나 부당해고를 당하자 이에 저항하고자 노조의 투쟁가로 성장하는 전형화된 여성 노동자 ‘정순’을 중심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이러한 형상화는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쟁의의 주된 재현이 대공장 남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상기할 때 특히 주목할 만하다.

시의 전체 구성을 살펴보면, 먼저 1장과 3장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실제 목록을 밝히고, 박정희 군사정권의 외자 유치 역사, 수출 자유지역 설치 과정에서의 노조결성, 노동쟁의가 불법화되며 노동자가 착취당해 온 역사를 서사화한다. 특히 1장에서는 수미다전기뿐만 아니라 아세아스와니, 한국피코, 한국 TC 등 당시에 노동착취 및 부당해고가 발생한 외자기업의 다양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연대 의식을 표명하고 있다. 2~5장에서는 고통받는 수미다전기 여성 노동자의 전형인 정순의 서사

42) 이종구, 심상완, 이상철, 「일본계 외자 기업의 공장철수에 대한 한일 노동자 풀뿌리 국제연대 : 1989년 수출자유지역 노조의 일본 원정투쟁 사례」,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33호,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7, 115-116쪽.

43) 「[여성 노동운동 ‘이 장면’](7)한국수미다전기 노조의 일본 원정 투쟁」, 『주간경향』, 2021.5.3.

가 전개되는데, 시에서 그가 고통받는 이유는 노동의 참혹함 때문만이 아니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그는 열악한 환경일지언정 복직해서 일을 해야 하는 생계부양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독한 신나 냄새와 잦은 잔업에도 일터로의 복귀를 바라는 인물로 그려진다. 이러한 여성 노동자의 서사는 그를 피해자로 형상화하는 것을 거부하고, 정순은 단순 조립공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미자 언니’를 보며 “눈빛만큼은 사랑으로 빛나는” 동료애를 느낀다. 이러한 동료애가 6, 7장에서 민주노조 결성의 서사로 이어지면서 노조 탄압에 이은 부당해고와 그에 대한 저항이 주요하게 재현된다. 나아가 8장에서는 정순이 노조 결성의 정당성을 ‘미자 언니’와의 연대감을 통해 확인하고, 여성 노동자들의 연대는 시의 말미인 19~20장에서 수미다 전기와 TC 노동자들의 원정 투쟁을 위한 마산창원지역 노동자결의대회 출정식으로 나아가는 동력이 된다.

이 시에서 두드러지는 양식적 특징은 10, 13, 15, 17장의 몽타주적 대화(dialogue)의 배치이다. 몽타주의 기본적인 목표는 브레히트의 소격 효과와 같이 관객에게 정서적 충격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이미지 결합을 위한 의미의 생성이라는 측면에서 환유적인 것이었으며, 관객으로 하여금 의미 생성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기술이었다.⁴⁴⁾ 인용한 시는 현장의 목소리와 사측의 목소리를 몽타주적으로 배치하여 청자의 대화적 참여를 유도한다. 이는 활자체의 변형을 통해 시 텍스트 내부에서 구분된다. 10장과 13장에서는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화자가 집단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폐업의 실질적 원인이었던 노조 탄압⁴⁵⁾을 가리기 위한 수사에 불과했으며 시는 이를 고발하며 부조리를 가시화한다. 15장과 17장에는 투쟁 현장의 목소리가 등장한다. 갑작스럽게 시의 서사에 개입한 이 목소리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사측의 부당해고 항목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투쟁하는 동지들을 독려하는

44) 박수연, 「현대시와 몽타주—김정환의 시를 중심으로」, 『비평문학』 18호, 한국비평문학회, 2004.

45) 이종구, 심상완, 이상철, 앞의 책, 116쪽.

현장으로 청자를 이끈다. 여기서 사측의 권위적·단성적 담론은 투쟁과 선동의 집합적 질서와 충돌하면서 이질성과 고발의 충격 효과를 극대화한다. 이와 같은 배치는 궁극적으로 청자가 시를 경유하여 사회적 대항언어로 현실의 투쟁 현장에 동참하게 한다. 그 과정을 통해 시의 화자와 청자는 시의 미학적 세계를 공유하며 연대하는 투사적 주체로 함께 변화한다. 다성적 소통의 장치는 이러한 의미에서 주체 형성의 과정을 내포한다.⁴⁶⁾

이러한 다성적 대화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타자적’으로 섞여 들고 변형되는 과정”⁴⁷⁾이며, 관계를 통해 주체의 생성과 이행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창작 주체, 작품의 화자, 청자의 관계가 상호 타자적으로 연결되며 시를 통해 고정된 주체(이데올로기)가 아닌 생성하는 사건적 주체로의 이행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한편 타자성을 배제하는 고정된 주체(이데올로기)를 문학주의적 관점에서 비판하는 ‘운동의 언어’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노동자문학회의 단편 서사시의 언어는 그 자체로 사회적 타자의 언어였으며, 이를 공유하는 청자들 역시 사회적 타자들이었다.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사측의 이데올로기를 부수는 시와 청자 간의 타자성의 대화 양식이 성립된다.

46) 이러한 관점은 시와 예술 외적 현실의 사회적 관계들이 상호작용하며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바흐친의 다음과 같은 서술에도 잘 드러난다. “이데올로기적인 다른 영역들, 특히 사회·정치적인 구조나 경제는 단지 외부에서뿐 아니라, 이 내적인 구조적 요소들에 기대면서 시를 결정한다. 그리고 역으로 창조자, 청취자 그리고 주인공의 예술적인 상호작용은 사회적 의사소통의 다른 영역에까지 영향을 행사한다. 한 시기의 문학에 고유한 유형적인 주인공은 어떠하며, 그들에 대한 작가의 형식적인 경향은 어떠하며 그리고 문학적 생산에서 주인공과 작가와 청취자와의 상호 관계들은 어떠한가 하는 질문에 대해 완벽하게 답변하기 위해서는, 그 관계된 시간의 경제적이며 이데올로기적인 조건들에 대한 광범하고 다양한 분석으로 나아가야 한다.” 미하일 바흐친, 『생활 속의 담론과 시속의 담론 : 사회학적 시학을 위한 기여』, 츠베탕 토도로프, 최현무 역, 『바흐친 : 문학사회학과 대화이론』, 까치글방, 1987, 186쪽.

47) 최진석, 『민중과 그로테스크의 문화정치학 미하일 바흐친과 생성의 사유』, 그린비, 2017, 143쪽.

아울러 인용한 시의 제목 옆에는 해당 작품이 “집단 낭송을 위한 시”⁴⁸⁾임이 밝혀져 있다. 이 작품이 활자의 목독이 아닌 집단낭송을 목적으로 했음을 고려하면, 이 시의 수행성은 일반 독자보다 투쟁 현장에 참여한 투쟁 동지들을 청자로 설정할 때 효과적으로 발휘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이 시의 취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현장으로 찾아가서 육성을 듣는 청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시의 17장에서 전달하는 정부 당국자의 멸시, 영사관 직원의 무시, 뒤이은 백골단과 경찰의 폭력은 현장의 청자에게 강력한 동일시를 야기하는 장치이다. 따라서 이 시는 문자적 측면에서는 보고문학(르포르타주)의 양식을 지니는 한편 낭송이라는 청각적 차원에서는 선동시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시가 갖는 선동성은 공동체적 내면을 요청하는 집단적 리얼리즘 양식이라 할 수 있다.⁴⁹⁾

이 시가 대중에게 낭독되고 집단적 실천을 요청하는 단편서사시 양식을 취한 것은 전국노동자문학회 역시 사회주의 문학의 전통을 되살리려 한 1980년대 후반의 문학운동과 영향 관계 속에 있었음을 암시한다.⁵⁰⁾

48) 편집부 엮음, 앞의 책, 195쪽.

49) 이런 의미에서 인간의 음성이 갖는 역동성과 구술이 갖는 통합적 감각과 공동체성이 성스러움을 만들어낸다는 웅의 분석이 시의 집단낭송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윌터 J. 웅, 이기우·임명진 역,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2004, 119-123쪽.

50)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부산노동자문학회가 자신들의 문학사적 기원을 카프로부터 검토한 것 외에도, 당대 문학계에서는 일군의 비평가들이 노동문학을 재정립하기 위해 조선의 카프문학과 해방기 보고문학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했다. 그 성과로 한기형과 임규찬은 1989~1990년에 『카프비평자료총서』를 발간했으며, 신승엽은 김오성의 「보고통신문학 제문제」를 발굴해 잡지에 게재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고문학’의 활발한 창작을 위하여」를 집필해 보고문학 장르의 재정립을 시도했다. 이는 조정환에 의해 비판적으로 계승되었다. 아울러 1989년은 신승엽에 의해 임화의 시집 『현해탄』이 재발행된 해이기도 했다. 허요한, 「『노동해방문학』의 성격과 ‘노동해방문학실’의 문예조직운동(1)보고문학」, 『구보학보』 35호, 구보학회, 2023, 528-529쪽; 「임화전집 첫 권 ‘현해탄’ 출간」, 『한겨레』, 1989.1.17.

그리고 이는 전국노동자문학회의 시 창작의 문예운동적 위치를 가늠하게 한다.

‘단편서사시’라는 용어는 김기진이 임화 시의 형식적 특징에 착목해 프롤레타리아 시의 대중성 획득의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사용했고, 이를 계기로 김기진과 임화의 예술 대중화 논쟁이 전개되었다. 김기진은 단편서사시의 형식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소설적 사건을 활용하고, 사건의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며, 장편서사시처럼 인물의 성격과 묘사에 치중하기보다 행간의 정서적 비약을 살리고, 노동자들이 낭독하기 편하도록 써야 한다는 것이다.⁵¹⁾ 이에 반해 임화는 김기진의 형식 중심의 비평 자체가 정치적으로 후퇴한 입장이라고 보았기에 김기진의 논의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임화의 단편서사시는 예술적 대화양식으로 청자를 시의 담론에 끌어들이며 대화적 관계를 형성한다고도 해석될 수 있다.⁵²⁾ 이와 같은 시각은 리얼리즘 시의 활자적 재현을 넘어 현장의 대중을 향해 낭독하며 행위를 요청하는 단편서사시의 수행적 기능을 조명해준다. 그러나 임화가 강조한 당파적 입장에서 예술의 기능적 위치 또한 단편서사시에서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단편서사시의 내용에 드러나는 투쟁성과 조직화의 논리 역시 예술 대중

51) 김정훈, 「단편서사시의 개념, 대상, 범주 고찰」, 『국제어문』 16권, 국제어문학회, 1995, 331쪽.

52) 송기한은 바흐친의 이론을 바탕으로 임화 단편서사시의 대화적 특성을 조명한 바 있다. 그는 바흐친을 참조해 문학 작품을 하나의 담론으로 보면서, 그것이 외부의 여러 “의사소통 형식들과 힘의 상호작용 및 교환의 관계에 놓임으로써 스스로 창조적 수용과 쇄신을 반복”한다고 논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임화 단편서사시의 대화적 양식이 대중 청자를 텍스트 내부로 끌어들이는 기능을 한다고 규명했다. 이와 같은 임화의 단편서사시 분석은 노동자문학회의 단편서사시를 논의할 때에도 참조될 수 있다. 다만 송기한은 단편서사시의 청자를 대중으로 설정했으나 이 글에서 다루는 노동자문학회의 청자는 투쟁하는 공동체의 민중·노동자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송기한, 「‘단편서사시’의 대화적 담론 구조」,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2권,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1, 121-124쪽.

화의 목적성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도출된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단편서사시와 맥을 같이 했던 대중화론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전국노동자문학회의 단편서사시 양식의 위상을 논할 필요가 있다. 먼저 단편서사시를 둘러싼 식민지 조선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예술 대중화 논쟁은 통신원운동이 소비에트를 넘어 국제적으로 전개되는 맥락에서 나타난, 국가 단위를 넘은 다발적 운동의 한 부면이었다.⁵³⁾ 김기진은 일본의 구라하라 고레히토에, 임화는 후쿠모토주의의 영향을 받은 나가노 시게하루에 비견되었고, 이들 간의 예술 대중화 논쟁은 대중적 창작방법, 문예조직의 불세비키화, 조직운영의 방향성을 둘러싸고 ‘대중화’에 대한 상이한 관점을 드러냈다. 이때 대중화는 정치적 투쟁과 조직화와 예술운동에 따른 창작물의 형식과 대중적 유포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 어느 쪽에 더 비중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함의하고 있었다.

문학의 대중화 운동은 해방기에 조직화를 쟁점으로 하여 재차 나타났다. 북한에서는 1946년 3월 25일에 북조선총연맹이 결성돼, 문화예술인들이 대중의 사상과 감정, 의지를 조직하는 선전·선동의 조직자가 되고 예술의 원천을 인민대중에게 두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를 통해 씨클망의 확대·강화 및 예술의 대중적 보급의 중요성을 확립하고자 하였다.⁵⁴⁾ 남한에서는 조선공산당을 중심으로 1945년 12월 13일에 조선문학가동맹이, 1946년 2월 24일에 조선문화단체총연맹이 결성되어 문화정책을 수립해 나갔다. 이들의 대중화 정책은 10월 항쟁을 통해 투쟁적으로 변화된 대중에 맞춰 그간의 계몽적 관점을 넘어 정치투쟁적 문학 지침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고, 문화공작대의 활동은 그 실천적 사례였다.⁵⁵⁾

53) 와타나베 나오키, 「문학의 정치주의화-예술대중화논쟁과 주체로서의 ‘전위’」, 『임화 문학 비평』, 소명출판, 2018, 41-58쪽.

54) 박민규, 「해방기 북한의 문예대중화 운동과 시론」, 『한국근대문학연구』13권 1호, 한국근대문학회, 2012, 343-378쪽.

55) 윤여탁, 「해방정국의 문학 대중화 운동의 의의와 성과에 대한 연구」, 『선청어문』

이후 문학 대중화론은 전두환 군부정권의 유화조치 이후인 1984년 무렵 재등장해, 1987년 6월 항쟁과 노동자대투쟁을 거치며 민족문학주체논쟁이라 불리는 창작 주체와 장르 실천에 대한 일련의 대중화 논쟁으로 재부상한다. 1970년대의 민중문학이 민중을 대상으로 하는 수용 문제에 천착했다면, 1984년 이후의 논의는 노동자·농민 등 비전문 문인들을 창작·유통·소비의 주체로 조명했다. 이처럼 발전된 논의가 가능했던 이유는 각 지역의 노동자문학회 및 노동자전문학교가 결성되어 조직되었기 때문이다. 1980년대의 문학 대중화는 민족문학주체논쟁 이후 각 정파의 운동 방향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는 했으나 기본적으로 운동의 조직화를 의미했고 실질적인 실천으로 구체화되었다는 점에서 이전의 대중화 담론·운동에 비해 발전되었다.⁵⁶⁾

이렇듯 1980년대의 대중화론이 1920년대와 해방기의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대중화의 문제의식을 계승한다는 점은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문학과 정치의 관계에 관한 쟁점이 운동의 역사적 국면마다 되풀이되면서, 사회주의 리얼리즘 문학의 재등장 또는 사회변혁 의지의 분출이 문학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또한 문학의 대중화론에서는 언제나 운동의 조직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핵심 사항이었다. 이는 앞 장에서 부산노동자문학회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노동자문학회의 문예운동 논리의 형성 과정에서도 계승되었다.

노동자문학회가 문학의 대중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이어받는다는 것은 1980년대 노동자 글쓰기가 문학 창작의 평등주의를 초과하여 사회변혁의 전망을 지닌 주체를 형성하고 노동해방운동을 조직화하는 방법으로서 문학을 전유했음을 의미한다. 그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투쟁의 현장성과 조직화를 시의 양식으로 구현한 노동자문학회의 집단창작

18권,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1989, 448-450쪽; 박민규, 앞의 책, 200-201쪽; 조은정, 「해방기 문화공작대의 의제와 성격」, 『상허학보』 41권, 상허학회, 2014, 243-255쪽.

56) 이영미, 앞의 책, 407-478쪽.

단편서사시는 근대적 개인의 발견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온 근대문학사에 대한 발본적 문제 제기를 표현한 양식 실험이었다. 이것이 위로부터 전파되는 한계를 벗어나 아래로부터 조직화되어 전파되는 노동자문예운동의 대중화였다는 측면은 1980년대 후반의 성과로서 문학사적으로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전국노동자문학회의 단편서사시는 집체극으로 변용되기도 했는데, 다음 장에서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4. 단편서사시의 집체극 양식으로서의 변용과 집합적 연행

이 장에서는 『노동자문예운동』에 실린 부천노동자문학회의 「천만개의 불꽃으로」의 집체극으로서의 변용을 분석한다. 이 작품은 『작업화 굵은 자국을 찍으며』(1989)에 실린 동명의 단편서사시를 집체극 대본으로 개작한 것이다. 대본 말미에서는 “89년 부천지역 노동자 송년대잔치 행사”의 “노동자투쟁극을 위하여 부천노동자문학회가 집단창작한 시 ‘천만개의 불꽃으로’를 집체극에 맞게 개작”⁵⁷⁾했다는 부기를 통해, 해당 작품이 집체극 대본임을 명시했다. 노동문학의 집체극은 단일한 예술 장르라기보다, 운동의 관점에서 대규모 관객과 출연진이 함께 어우러져 노래, 춤, 풍물, 시 낭독을 동시에 진행한 집합적 연행예술 양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부천노동자문학회의 집체극 개작은 노동시가 문예운동 단체에 의해 변혁운동의 과정에서 새롭게 창안된 극양식을 수용해 양식적 범주를 넓혔다는 미학적 의의를 갖는다. 또한 집단창작에 이은 집체극 공연은 개인적 창작과 수용의 위계적 이분법으로는 실현할 수 없는 조직화된 문예 양식의 전형으로 볼 수 있다. 부천노동자문학회의 집체극은 투쟁 현장에서 투쟁의 장면을 재현하였고, 이러한 집체극 공연은 창작자와 관

57) 편집부, 앞의 책, 182쪽.

객의 합의된 선동을 통해 정치와 문학이 혼합되는 수행성의 장소를 만들어냈다.

먼저 한국에서 ‘집체극’은 민중문화운동연합(이하 민문연)에 의해 주창된 개념으로, 1987년 이후 변혁운동의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마르크스주의적 예술 방법론(내용과 형식의 변증법적 통일)을 바탕으로 새롭게 창안된 극 양식을 지칭했다. 1988년에 발표된 민문연의 「집체극에 대하여」는 집체극을 1960년대부터 활성화된 탈춤·마당극의 영향하에 자본주의 중심부와 주변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제3세계 미학의 영향을 받은 민속극 운동을 시대 변화에 맞춰 극복한 시도로 설명한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예술의 생산력 발전, 즉 창작 주체가 변화된 현실의 가치체계를 받아들인 상황에 의한 것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예술 형식과 새로운 가치 체계의 결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순을 변증법적으로 극복해 새로운 문화양식을 창안하는 데 집체극의 목적과 문제의식이 있었다.⁵⁸⁾

민문연이 집체극을 정의한 또 다른 글에 의하면, 집체극은 6월 항쟁과 노동자대투쟁을 통해 경험한 민중의 변혁 의지를 예술로써 다시 이끌어 내기 위해 발명한 새로운 역사적 예술 양식이다. 여기서 핵심은 변혁 의지를 예술가가 체화하여 작품으로 양식화하는 것으로, 주안점은 내용에 있다.⁵⁹⁾ 이와 같은 집체극은 극 구조 속에서 음악, 시 낭송, 영상, 춤, 풍물 등이 양식적 특성을 유지하되 유기적으로 결합한다.⁶⁰⁾ 이

5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00978708, [민중문화운동연합], 김찬호, [1988.06.11], ‘제2회 민중문화의 날 6월의 노래 -평등의 땅-’, 10쪽.

59) 이와 관련해 민문연의 집체극 명칭에 대해 형식적 차원에서 협동활동(김창남)이나 굿(정지창), 대동마당굿(채희완)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지만, 이는 집체극의 마르크스주의적 인식(내용)의 우위성을 배제한 논의이기에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민문연은 의식적으로 서구의 총체극 양식과 집체극을 구분했으며 그 기준은 도그마 혹은 이념적 차원으로 설명되었다. 위의 책, 13쪽; 김윤수, 정지창, 채희완, 김창남, 이성욱, 「좌담 민중예술운동, 이제부터의 과제」, 『창작과비평』 63호, 창비, 1989, 50-51쪽.

는 기존 예술 장르들을 대규모 집회 공간에 적합하게 재배치한 종합 예술 양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1988년 이한열 열사 추모 1주기 집체극 <죽음을 넘어>에 관련된 팸플릿에서도 앞선 민문연의 정의와 유사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집체극은 ①인식 주체와 대상 간의 대립·투쟁·통일의 변증법적 운동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현대적 양상이며, ② 1987년 6월 이후 예술 창작 주체가 민중의 변혁의지와 투쟁력을 수용해 작품을 무기로 삼기 위한 형식이다. 또한 ③집단적 힘의 분출을 통해 역사적이고 굵은 선을 형상화하며 투쟁하고 해방되는 인간형의 보편성을 창출하고 그로써 개인과 집단의 변증법적 통일을 형상화하는 양식이다. 그리고 ④개인과 개별 장르의 생산력 체화 정도와 집단적 변혁의지의 표현을 감당할 예술 역량 재고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장르이다.⁶¹⁾ 이러한 집체극의 특징은 개별 예술 장르가 결합한 종합적 예술 형태로 나타나며, 노래, 독백, 시 낭송, 대화, 효과음, 다큐멘터리, 슬라이드, 무용 등이 결합된 총체적 집회 양식으로 설명된다.⁶²⁾ 결국 집체극은 민중의 변혁적 의지와 예술가의 인식이 결합해 개인과 집단의 변증법적 통일을 형상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이를 개별 예술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구현해내는 현장성과 집합성의 연행 양식이라 할 수 있다.

단편서사시의 집체극으로의 장르 변환은 문학의 민주주의와 조직화의 연계성을 재차 환기한다. 시와 노래, 연행예술의 결합은 매체통합이라는 관점에서 1980년대 초반부터 논의되었고,⁶³⁾ 이후 민족문화운동협

6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00978708, [민중문화운동연합], 김찬호, [1988.06.11], ‘제2회 민중문화의 날 6월의 노래 -평등의 땅-’, 11-14쪽.

6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00983974, [문우극회, 노래패활천, 풍물패 협의회건설준비위원회], 연세대학교, [1988.06.09], ‘고 이한열 열사 1주기 추모 집체극 - 죽음을 넘어’

62) 『타이거살롱』 집체극 <앞으로, 앞으로> ‘정치적 극장이 된 광장’의 원류와 장래, 『고대신문』, 2017.5.8.

63) 좌담, 『80년대 詩,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신경림 외, 앞의 책, 23-24쪽, 좌담,

의회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과 같은 단체가 조직되며 다양한 예술 장르들이 운동을 매개로 결합되어 왔다. 1980년대 후반의 노동자문학회는 전문 예술인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노동자조직 내 문학운동 집단이었으나, 이들의 집체극 양식 실험 역시 당대의 매체통합의 문예운동적 성격을 공유했다. 박상은은 1980년대 노동연극이 “창작 주체와 객체 간의 괴리와 문화적 위계 서열화를 해체”⁶⁴⁾함으로써 ‘대중화’의 운동적 성격을 잘 드러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전국노동자문학회가 창작 주체와 객체 간의 ‘민주화’와 더불어 노동자 민중 주체의 형성과 문예운동을 가능하게 한 ‘조직화’의 차원과도 연계되었음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지역노동자문학회의 전국적 연대 조직화는 문학을 통한 노동계급운동의 대중화의 실현이었으며 이는 노동자대투쟁 이후 문학의 민주주의를 수행한 노동자 민중의 주체적 실천 사례였음을 논하고자 한다.

이러한 종합 예술 양식인 집체극 「천만개의 불꽃으로」는 우선 창작과 공연이 노동자에 의해 수행되고 노동자들의 실제 노동 현장과 투쟁 과정을 재현했다는 점에서 넓은 범주의 노동연극이나 노동 사례극에 포함된다. 박상은이 밝혔듯이, “노학연대의 확산과 조직적 운동문화의 발달은 노동연극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⁶⁵⁾이 되었고, 1980년대 노동연극의 사실주의적 경향은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언어와 상황들에 대한 대사의 일상성”⁶⁶⁾을 통해 구현되었다. 노동연극은 관객을 대상으로 한 무대극을 상정했고 노동자 집체극은 대형 행사나 집회 등 광장에 모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했기에 형식적 차이를 갖지만, 극의 목적과 내용은 유사했던 것이다. 노동연극은 공연 과정에서 현장 노동자들의 “정서적 동

「바람직한 문학운동을 위하여—운동개념으로서의 문학」, 고은 외, 앞의 책, 26-28쪽.

64) 박상은, 『한국 현대연극과 현장성의 미학』, 역락, 2024, 224쪽.

65) 위의 책, 224쪽.

66) 위의 책, 238쪽.

화”⁶⁷⁾를 이끌어 냈다. 그리고 「천만개의 불꽃으로」가 노동자 송년 대잔치 행사의 일부로 기획되었음을 감안할 때, 공연 이후 노동자들의 공동체적 교류 또한 연극의 수행적 과정이 된다. 바로 이러한 지점이 노동자 집체극에 끼친 마당극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⁶⁸⁾

그런데 「천만개의 불꽃으로」의 대본이 동명의 단편서사시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 대본의 시적 양식에도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천만개의 불꽃으로」는 연극 대본으로 쓰인 작품이 아니라 이미 창작된 시를 기반으로 하여 집체극 형식을 구축한 것으로, ‘시극’의 범주로도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주지하듯 시극은 시와 극이 융합된 양식이다. 시극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16년 이광수의 「문학이란 何오」이며, 최초의 창작 작품은 1923년 월탄 박종화의 「죽음보다 압흐다」로 알려져 있다.⁶⁹⁾ 이상호에 의하면 한국 시극의 주요한 특성은 다음과 같다. ①작가가 주로 시인이며 ②문체는 운문체 유형이 강세를 보이나 산문체와 운문·산문이 결합한 형태도 다수이고 ③극의 구성은 단막극 형태가 우세하며 공연보다는 서재극 형식이 다수였고 ④전형적 인물을 통해 인간 보편의 문제를 다룬다.⁷⁰⁾ 이 중 ③을 제외한 모든 특성이 「천만개의 불꽃으로」에 부합한다. 아울러 「천만개의 불꽃으로」의 경우 창작 주체가 개인 전문 작가가 아닌 노동자 집단이었고, 공연의 형태·구성·언어가 노동자 친화적이며 사실주의 기법으로 대중성

67) 위의 책, 241쪽.

68) 이는 임진택과 채희완이 마당극은 예술 행위라기보다 예술이 아닌 것을 드러냄으로써 예술이기를 기약하는 ‘예술의 생활화’라고 정의한 것을 참고할 수 있다. 그들에 의하면 마당은 “공간적이며 동시에 시간적인 상황개념으로써 삶의 토대이자 그 삶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문화 생성의 토대이며 아울러 공동 집회의 장소”인데, 노동자들의 삶의 일부는 노동조합 조직과 노동 투쟁이며, 집회가 그들 문화의 일부라고 상정한다면 노동자 대화야말로 하나의 마당일 수 있는 것이다. 임진택, 채희완, 「마당극에서 마당극으로」, 정이담 외, 『문화운동론』, 공동체, 1985, 116-117쪽.

69) 이상호, 『한국 시극사연구』, 국학자료원 새미, 2026, 46-48쪽.

70) 위의 책, 561쪽.

을 획득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이는 이 작품이 시극의 특성을 가지면서도 그 양식적 개인성을 극복한 사례임을 말해준다.⁷¹⁾

「천만개의 불꽃으로」의 양식은 부천노동자문학회가 스스로 정의했듯 집체극으로 범주화해야 하나, 이 집체극은 노동연극의 사실주의적 극 양식과 시극의 특징 역시 포함하며, 그 내용에서 선동시의 특징도 포괄한다. 본고에서 「천만개의 불꽃으로」의 복합적 양식을 상세히 논하고 시적 양식에 주목한 이유는 그간 이 작품이 어떠한 극 양식의 역사에도 기입되지 못한 채 노동시의 범주 속에서만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고에서는 집체극 대본 「천만개의 불꽃으로」를 동명의 단편서사시와 비교하며 그 양식적 변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단편서사시 「천만개의 불꽃으로」는 구호와 선동을 중심으로 한 양식적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1987년 6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 1988년 부천에서의 민주노조 설립, 1989년의 부천지역 노조 투쟁과 연대파업을 주요 사건으로 서사화하였다. 이 시에서 ‘천만’ 노동자는 부천지역을 넘어선 전국 단위의 노동자 총단결을 의미하며, 이는 전노협 건설과 노동해방의 전망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시의 마지막 연에서는 천만 노동자에서 사천만 민중으로 해방의 전망이 확산된다. 이러한 단편서사시의 구조는 집체극 대본으로 개작되면서 시청각적 퍼포먼스와 전면적으로 결합해 복잡한 양상으로 변형되고 그 집합적 역량이 극대화된다. 이는 장르 결합을 통한 ‘통일된 다성성’의 구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집체극 대본 「천만개의 불꽃으로」는 노동자 한풀이 마당으로 시작해 철야작업을 하는 노동자의 고단한 모습을 그려낸다. 박노해의 「손무덤」

71) 이상호가 지적했듯이, 시극이 사색을 중시하고 시적 기법을 적극 활용하는 과정에서 대중적으로 낯선 양식이 된 점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80년대 말 하종오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역사의식이 짙은 시극을 창작하기도 했지만, 이상호의 이에 대한 견해는 “시극은 사실주의극의 맹점을 극복하기 위해 시도된 것이므로 그가 비판한 요소가 오히려 본질적인 것”이라는 미학적 평가에 그침으로써 오히려 시극의 대상 범주 확장에 대한 가능성을 협소화한 측면도 있다. 위의 책, 501쪽.

을 연상하게 하는 초반부에는 동료 노동자의 산재 상황이 재현되고, 노동자의 꿈이 프레스에 눌린다는 비유를 통해 노동 현장의 참혹함이 고발된다. 대본의 서사 속에서 이러한 노동 현실은 1987년 6월 항쟁과 겹쳐지고, 박종철 열사와 이한열 열사의 죽음에 대한 민중의 저항과 직선제 개헌을 향한 정세 변화를 통해 반전의 계기가 마련된다. 그러나 노태우의 직선제 개헌 수용에도 노동자들은 속지 않고 노동자대투쟁과 1989년까지 이어지는 민주노조 운동을 전개한다. 노동자들은 횃불을 서로 나누며 연대투쟁을 지속하는 가운데, 노동자들의 임금투쟁은 노태우 정권 타도를 외치는 정치운동으로까지 확산되고, 백골단의 탄압과 오월광주의 정신은 이어지며 역사화된다. 이어서 1989년 4월 15일 부천지역 최초의 노동자 연대파업이 형상화되고, 연대파업은 부노협 건설로 이어진다. 결국 이러한 서사는 전노협 건설을 외치며 전노협 진군가를 부르고 사천만 민중이 하나가 되자는 집단낭송과 풍물로 마무리된다.

이와 같이 집체극 대본 「천만개의 불꽃으로」는 단편서사시의 역사화양식을 골자로 하여 부천지역 노동자의 조직화를 기록했고, 현실주의 미학으로 노동자의 모순된 현실과 이를 돌파하는 투쟁 과정을 재현하여 계급의식을 반영했다. 또한 집체극 양식은 그 자체로 다수의 노동자 대중을 향해 조직화된 노동자들의 모습을 재현한 선전이었고, 시 낭송의 정적인 공연 방식을 탈피해 노동자 대중과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구호를 외치는 미적 경험으로 현장성의 수용 미학을 형성했다.⁷²⁾ 나아가 이러한 「천만개의 불꽃으로」의 집체극이 서사적·양식적으로 전국단위 조직화를 추동하는 현실변혁의 무기였음을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작품 구성을 상세히 살펴보며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논하겠다.

72) 박상은은 연행예술을 통한 공연자와 관중의 미적 체험의 효과를 브레히트 연극과 뒤프렌드의 미적 경험의 현상학으로 이론화하여 설명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연행예술의 미적 경험은 공연자와 관중의 공동체성을 형성한다. 박상은, 앞의 책, 38-47쪽.

<표 1> 「천만개의 불꽃으로」 시와 집체극 대본의 차이 예시

시 「천만개의 불꽃으로」	집체극 대본 「천만개의 불꽃으로」
87년 6월 서울 명동을, 광주를, 부산을 전국을 휘몰아친 민중들의 함성 종철이를 살려내라! 한열이를 살려내라!	노래: ‘단순조립공’(2절, ‘홀로 계신 우리 엄마도’ 부분부터 여기게) 춤: 무대에 등장한 춤패, ‘단순조립공’ 가락에 맞춰 작업하는 동작을 한다. 구호: [노동자1,3,4 함께] 독재타도 호헌철폐!(2번. 점점 강하게, 2번 점점 여기게) 시: [노동자 2 낭송](구호 끝부분에서 시작) 87년 6월 서울 명동을, 광주를, 부산을 전국을 휘몰아친 민중들의 함성 -종철이를 살려내라! 한열이를 살려내라!(174면)
분단올림픽이 총칼로 치러지던 88년 부천에선 노조설립 보고대회가 계속됐다	춤: 시가 낭송되는 동안 계속 작업하는 동작을 한다. 시 낭송 끝부분에서 1명의 노동자가 깃발을 나누어 준다. 깃발춤 이어진다. 풍물: 7,8월 노동자의 대투쟁을 힘차게 알린다. 시: [노동자 4 낭송] 분단올림픽이 총칼로 치러지던 88년 부천에선 노조설립 보고대회가 계속됐다(175면)
89년 새날이 밝았다	춤: 시가 낭송되는 동안 깃발은 계속 나부끼다가 노래가 나오면 노래가락에 맞게 나부긴다. 노래: ‘노동조합가’(노래가 끝날 즈음 춤패 서서히 퇴장), ‘노조 연대가’(여리게 하다가 ‘폭풍우 먹구름’ 부분에서 점점 강하게) 시: (‘노조 연대가’가 여리게 불려지는 동안 계속해서 낭송한다) [노동자 3 낭송] 89년 새날이 밝았다(175면)
드디어 2월	춤: 햇불 들고 1명 등장, 점화되지 않은 햇불 들고 3명 등장. (‘불꽃을 나눠주었다’ 부분의 시 낭송에서 불꽃 점화) 햇불을 중앙에 집결시킨 뒤 무대를 둘러싼다. (시낭송 끝부분에서 다수의 노동자들 등장) 시: [노동자 1낭송] 드디어 2월(176면)
이 전투에서 부상자들이 속출했다 손가락이 잘리고 머리통이 깨지고 항의하러 간 동지들이 구속됐다	풍물: 다시 백골단의 등장을 알리는 가락 춤: 춤패, 가락에 맞춰 쓰러진다 시: [노동자 4낭송] 이 전투에서 부상자들이 속출했다(177면) 손가락이 잘리고

싸움은 끝난 듯 보였다 그러나 이젠 아니다 때릴수록 더 강해지는 우리들 투쟁 속에서 대오가 갖춰졌다 투쟁 속에서 깨우치고 투쟁 속에서 단련되었다	머리통이 깨지고 항의하러 간 동지들이 구속됐다 싸움은 끝난 듯 보였다 노래: ‘열사의 그 뜻대로’(‘우리는 투쟁’의 부분부터 여러개) 춤: 노래 가락에 맞춰 서서히 꿈틀거리다가 일어선다. 일어선 후 투쟁의 대오를 정비한다. 사: [노동자 1낭송] 그러나 이젠 아니다 때릴수록 더 강해지는 우리들 [노동자2 낭송] 투쟁 속에서 대오가 갖춰졌다 [노동자3 낭송] 투쟁 속에서 깨우치고 [노동자 4 낭송] 투쟁 속에서 단련되었다 (177-178면) [노동자 1낭송] 깨지면서 노동자는 안다 박살나면서 노동자는 하나씩 배운다 그래, 이 세상은 우리들의 세상 우리가 뭉쳐 싸우면 내뽀들을 한주먹 감이야(177-178면)
전국 최초의 연대파업!!!	[노동자 1,2,3,4 다같이 낭송] 전국 최초의 연대파업!!! (178면)
14만 부천노동자의 피와 땀 분열과 패배, 절망을 뒤집을 영원한 단결투쟁의 장 부노협은 그렇게 건설되었다	14만 부천노동자의 피와 땀 분열과 패배, 절망을 뒤집을 영원한 단결투쟁의 장 부노협은 그렇게 건설되었다 품물: 부노협 건설로 신명나는 한마당을 펼친다 춤: 품물가락에 맞춰 잡색춤을 춘다. 노래: ‘민주노조사수가’ 춤: 노래에 맞춰 율동한 후 퇴장한다. 사: [노동자1,2,3,4가 날짜별로 돌아가면서 낭송] 9월26일 송내동에 위치한 보성전자 노조결성 9월30일 대운전자 임금인상 파업 돌입 10월 6일 임투, 단협 공동투쟁위원회 발대식 10월 13일 세계정밀 파업 돌입 11월 1일 살인적인 위장폐업으로 금산전자 파업 돌입 11월 3일 대운전자·세계정밀 1천여명 공권력 난입 56명 전원 연행, 7명 구속 11월 3,4,6,7,8일 연일 계속되는 공권력 난입 규탄시위 11월 12일 전국노동자대회-경찰의 원천봉쇄, 서울대·신세

	계·동대문 등지에서 격렬한 가두시위 전개 11월 16일 영본시몬스 파업 돌입 11월 17일 전국노동자대회 원천봉쇄 항의 전국 총회투쟁 전개, 부천지역 40여개 노조 참여(180면)
투쟁하자, 동지들 우리는 노예일 순 없지 않느냐	[노동자 1,2 함께 낭송] 투쟁하자, 동지들 우리는 노예일 순 없지 않느냐 풍물: 무대중앙으로 등장하며 노동자의 힘찬 전진을 알리는 가락 연주. 구호:(풍물가락 연주 중간에) 천만노동자 총단결로 전노협을 건설하자!!! 전노협을 건설하여 노동해방 앞당기자!!! 춤: 풍물 가락 끝부분에서 전노협 깃발을 들고 등장, 풍물대 앞으로 나서 어깨 동무를 한다. 노래: ‘전노협 진군가’ 춤: ‘전노협 진군가’에 맞춰 율동 노래: ‘함께 가자 우리 이길을’(시가 낭송되는 동안 여러게 하다가 시 낭송이 끝난 후 강하게) (181면)

<표1>은 「천만개의 불꽃으로」가 시에서 집체극 대본으로 변용되면서 수정된 부분 중 두드러진 형식적 변화나 추가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천만개의 불꽃으로」는 집체극 양식으로 변용되면서 풍물, 노래, 춤, 구호, 시 양식이 결합되었고, 이를 통해 시의 각 행의 연극적 재현을 위해 다양한 퍼포먼스가 추가되었다. 일례로 극에서 노동자들의 단순노동이 <단순조립공> 노래에 맞춘 춤패의 동작으로 형상화되고, 그러한 모습이 시가 낭송되는 동안 배경으로 존재하다가 극이 반전되는 순간 깃발춤이 국면의 전환을 알린다. 뒤이은 풍물은 노동자대투쟁을 시청각적으로 전달한다. 1989년 2월과 4월의 투쟁 장면은 춤패가 횃불을 들고 나와 시의 구절을 시각화하기도 하고, 백골단과의 전투 장면을 춤과 풍물로 표현하기도 한다.

풍물과 춤은 극에 동적 요소를 삽입하여 행사 참여자들이 공동체성을 몸으로 체험하는 공간을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춤과 풍물의 역할이 최고조에 이르는 대목은 두 부분이다. 극 후반부에서 부노협 건설을 알리며 신명 한마당을 펼치고 풍물가락에 잡색춤을 추며 <민주노조사수가>

를 부르는 장면, 그리고 전노협 건설을 위해 춤패가 풍물, 구호, 어깨동무와 함께 전노협 진군가를 부르는 장면이다. 여기서 한마당으로 판을 여는 것은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고 풍물과 춤으로 어우러짐으로써 연행의 현장성을 극대화하는 장치로, 이는 <전노협 진군가>에 맞춰 율동을 할 때에도 이어진다. 이를 통해 극의 출연자와 관객(동료 노동자)은 함께 어깨를 걸고 투쟁 구호와 율동을 수행함으로써 집체극 양식과 노동 투쟁 현장을 결합해낸다. 이처럼 노동 집체극과 정치 투쟁의 양식적 결합은 문화적 위계 서열화를 해체하는 예술적 대중화의 민주주의적 진전일 뿐만 아니라,⁷³⁾ 예술이 곧 현실의 기술이자 정치 행위가 되는 전위성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아울러 집체극 대본에서는 개별적 목소리를 교차적으로 배치해 낭송의 구도를 세분화하고, 구호의 제창과 노래의 합창을 통해 다성성과 집합성을 강화했다. 먼저 대본에서 노동자 1, 2, 3, 4가 날짜별로 돌아가면서 부노협 각 사업장의 노조결성일지와 파업일지를 낭송하는 장면은 노동자들의 개별적 정체성과 각 사업장의 특수한 상황을 잃지 않게 한다. 동시에 다수의 화자들이 돌아가면서 낭송하는 방식을 통해 사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불러일으킨다. 이 시의 낭송은 하나의 원소가 그 스스로도 집합이 될 수 있으며, 더 많은 수의 집합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 개별성을 해치지 않는 통일적 연대를 이루는 전국의 천만 노동자 총단결인 전노협 건설의 집합성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하였다. 또한 극의 후반부에서는 “전국 최초의 연대파업!!!”, “투쟁하자 동지들 우리는 노예일 순 없지 않느냐”라는 구호적 시구를 한 목소리로 제창함으로써 단편서사시의 집합성을 현장감 있는 퍼포먼스로 강화하였다.

한편 노래는 전노협 건설이 노동자들만의 닫힌 체계가 아니라 전 민중의 해방을 가능하게 하는 보편적 이념형인 노동해방의 추구임을 양식적으로 구현한 것이기도 하다. 노래는 극 안과 밖(투쟁 현장)을 연결하

73) 박상은, 앞의 책, 224쪽.

며, 연기자와 관객 모두를 극의 주체로 만든다. 또한 노래는 무대 밖의 목소리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예술의 집합적 양식에서 공집합과 같은 역할을 한다. 하나의 사건과 이데올로기가 새로운 집합의 구성 조건을 설정한다면, 공집합과 같은 주체들의 몸의 역량은 비가시화될지라도 집합 안에 항상 존재한다.⁷⁴⁾ 그렇기에 극의 대본에서도 노래는 특정 수행자를 지칭하지 않는다. 노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반대로 그 누구도 특정될 수 없다. <민주노조사수>, <열사의 그릇대로>, <노조 연대가>와 같은 노래들은 집체극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의 합창으로 불리거나 하나의 배경음으로 작동하도록 배치되어 있다. 극 말미의 <전노협 진군가>와 <함께 가자 우리 이길을>에 이르면 노래, 춤, 구호, 풍물이 결합해 집체극의 공동체적 행위성을 이끌어 내고, 이 또한 집체극과 투쟁 집회의 연속성을 만든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지점은 「천만개의 불꽃으로」의 선동적 특성이다. 이는 이 시와 집체극의 창작 목적 자체가 전노협 창설을 지지하는 노동자 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선전(Propaganda)이 의식을 발전율, 선동(Agitation)이 의식적 인간의 행위를 목표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임을 고려할 때,⁷⁵⁾ 「천만개의 불꽃으로」는 노동자 조직화에 대한 행동을 이끌어 내는 예술적 수행으로서 선동을 목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풍물, 춤, 낭송, 구

74) 정혜진은 알랭 바디우의 집합론을 참고하여 여성문화운동의 집합적 형식을 논한 바 있다. 정혜진은 예술적 진리생산 절차로서 사건적 다수를 명명하고 결집시키는 운동의 실천적 양상을 집합적 형식으로 보며, 특히 여성문화운동의 실천 사례들을 위상화해 민중문학·문화운동의 한계를 사건으로서의 ‘여성’을 명명하는 여성문화운동을 통해 극복하고자 했다. 이는 ‘여성’이라는 사건적 공백(공집합)을 통해 문학사를 재구성하는 또 하나의 사건적 주체의 글쓰기였다. 본고는 이 논의를 참조해 노동(공집합)의 영역에서 문학운동의 집합적 성격을 양식적 특성으로서 논하였다. 정혜진, 「고정희 여성해방시의 집합적 형식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5, 38-39쪽.

75) 편집부, 『선전선동론』, 지양사, 1989, 20쪽.

호, 노래가 집체극의 구조 속에서 심화시킨 집합적 연행은 선동성을 실현하고 강화했다.

이처럼 집체극 「천만개의 불꽃으로」는 일원론적 전체를 피하면서도 차이들의 통일을 지향했고, 시의 개별적·구체적 목소리, 구호의 단결성, 노래의 화성으로 집합적 연행의 보편성과 구체성을 드러내며 선동을 수행했다. 전국노동자문학회는 문예운동의 조직화를 통해 전노협 건설에 결합했으며 단편서사시와 집체극은 그러한 실천적 지향을 표현했다. 단편서사시의 집체극적 변용은 운동의 역사화와 현장성을 바탕으로 조직화와 변혁적 투쟁성을 동시에 담아내고, 장르 결합과 집합적 연행의 역량을 강화했다. 이는 ‘전국’의 상징성을 극대화하여 구현해 낸 예술 양식이었다.

5. 결론

1980년대 초반 소집단 운동 차원의 동인지와 무크지를 중심으로 ‘시의 시대’가 열린 후,⁷⁶⁾ 1987년 현장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지역노동자문학회와 전국노동자문학회의 연대체를 통해 ‘노동시의 시대’가 다시 도래했다. 1991년 이후 다수의 실천적 지식인들이 노동문학의 자리를 떠난 후에도 “노동자들은 ‘해방’을 위한 도정에 자신들의 이름을 기입함으로써 그 ‘꿈’의 연속성을 확인”⁷⁷⁾해야 했고, 그로 인해 문학사는 재배치되었다. 전국노동자문학회는 1998년까지 이어졌고, 지역 사업장 단위의 문학회는 2000년대 이후까지 활동을 이어나갔으며, 노동자문학회 출신의 시인들은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76) 심선옥, 「1980년대 시 동인지 운동과 ‘5월시」, 『상허학보』 50권, 상허학회, 2017, 453-454쪽; 좌담, 「80년대 詩,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신경림 외, 『詩人』 1, 시인사, 1983, 13쪽.

77) 장성규, 앞의 책, 67쪽.

가라타니 고진이 근대문학의 종언을 언급했을 때, 그는 자유민권운동 시기의 상상의 공동체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 일조했던 일본근대문학(근대 소설)의 시대적 소임이 끝났음을 설명했다. 즉, 그는 한 시대에서 문학의 운동적 역할이 끝나고 상품으로 남게 된 현상을 지적한 것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자신이 주장한 근대문학의 종언을 실감한 사례로 1990년대 말 한국에서 노동운동이 여전히 활발한 반면, 학생운동과 문학의 운동적 영향력이 (표면적으로는) 사라지는 상황을 예시로 들었다는 점이다. 여기서 그가 학생운동의 쇠퇴와 문학의 쇠퇴를 동일 선상에서 보고 있었다는 점을 특기할 만하다. 즉, 그에 의하면 정치와 노동운동이 불가능한 1980년대 이전의 시대적 환경과 공간에서 문학과 학생운동은 운동의 대리적 표현으로서 자리를 메워왔고,⁷⁸⁾ 1990년대 말에 이르러 그것이 소강상태로 보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라타니 고진이 미처 보지 못한 것은, 한국의 노동문학과 문화운동은 노학연대에 이은 노동운동 속에서 함께 지속되어 왔다는 점이다.

본고에서 밝혔듯이, 문학의 상품생산과 유통구조에 반기를 들고 생산주체와 향유 주체를 통합하려 했던 민족문학주체논쟁의 탈자본주의적 문제의식은 노동자문학회의 글쓰기 주체들에게도 이전된다. 따라서 1980년대 탈자본주의 문학론의 재등장과 함께 진행된 문학에서의 평등적 가치(상징자본으로서의 문학 자본의 분배 및 재배치)라는 문학적 민주주의 상상력은 서론에서 천정환이 이야기 한 “(근대)문학 너머의”, “포스트-문학사”⁷⁹⁾의 문제의식과 연결된다.

노동자문예운동은 자본주의 질서에서 소외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마르크스주의 문학으로의 전회를 선언한 노동해방, 민중·민족문학, 자주적문예운동 등의 영향을 받았다. 이때 운동으로서의 노동자 글쓰기는 문학을 표방했으되 기존의 문학적 질서로는 설명 불가능한 어떤 기능을

78) 가라타니 고진, 조영일 역, 『근대문학의 종언』, 비고, 2025, p.52.

79) 천정환, 앞의 책, 229쪽.

담당한다. 그것은 교환의 양식으로 창작자와 소비자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자본주의 문학 질서의 극복을 욕망하는 해방적 주체의 형성 과정이었다.

따라서 소위 ‘근대문학 종언’의 한국적 의미는 곧 민중적 글쓰기(아래로부터의 글쓰기)를 통해 문학사가 재구조화되는 사건을 가리키는 전환기적 의미를 갖는다고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여성해방문학의 출현으로 인해 근대적 부르주아 개인 남성의 문학 질서의 종언이 시작된 시점이 1980년대라는 점도 의미심장하다.⁸⁰⁾ 이런 의미에서 한국에서 1990년과 2000년대는 노동자 글쓰기의 지속성과 함께 페미니즘적 전환을 통한 (근대)문학의 재편성의 시기였다고 할 수도 있다.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에 형성되었던 전국노동자문학회의 존재는 한국 사회주의 운동의 역사적 반복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라 할 수 있다. ‘(노동)시의 시대’⁸¹⁾는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사회주의 운동의 시대와도 포개진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우리는 아주 오랜 시간동안 (부르주아)근대문학의 형성과 동시에 종말론적 시대에 살고 있다.

이처럼 지속되어 온 문예운동의 역사 속에서, 본고는 ‘노동시의 시대’를 열었던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 전국노동자문학회의 결성과 『노동자문예운동』의 집단창작 노동시의 양식 실험을 조명함으로써, 노동계급의 문화적 주체 형성 과정과 정치·예술의 결합 방식을 규명하였다. 본고의 2장에서는 1987년 전후 노동운동의 조직화 흐름에서 등장한 ‘전국’이라는 상징이 지역적 한계를 넘어 변혁적 노동자 조직을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노동해방을 통해 기존 국가의 질서를 새롭게 상상하는 열망의 표현이었다는 점을 밝혔다. 노동자문예운동에서는 그것이 ‘제1회 전국노동자문학동아리 대동제’를 통해 전국적 연대체로 구체화되었음을 밝혔다. 이렇게 결성된 전국노동자문학회의 집단창작 및 낭송·연

80) 이해령, 「빛나는 성좌들-1980년대, 여성해방문학의 탄생」, 『상허학보』 47, 상허학회, 2016.

81) 박지영, 앞의 책, p.186.

행 실험은 기성 문학의 개인주의·상품화·권위주의를 극복하고 노동자가 문학의 창작·향유 주체로서 집합성을 구현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조직화를 실천해낸 과정이었다. 이는 민중시 양식을 반자본주의적 문예운동의 지평으로 넓혔다는 문학사적 의의를 지닌다.

『노동자문예운동』에 수록된 집단창작 단편서사시와 집체극의 양식 실험은 1980년대 후반 노동문학의 대중화론과 조직화 논리가 현장성과 집합성을 지닌 문학적 실천으로 구체화된 결과이다. 본고의 3장에서는 단편서사시 마산노동자 참글동아리의 「현해탄 푸른 물결을 건너」가 사측의 이데올로기와 대립하는 투쟁 현장의 목소리를 몽타주적으로 배치한 다성적 대화 양식으로, 청자를 투사적 주체로 형성하며 집단낭송의 수행성을 구현했음을 밝혔다. 4장에서는 부천노동자문학회의 「천만개의 불꽃으로」가 기존에 창작된 단편서사시를 시, 풍물, 춤, 노래, 구호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집체극으로 변용해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고 현장성과 집합성을 극대화한 사례임을 논했다. 이러한 양식 실험들은 노동자들의 구체적 삶과 투쟁을 전형화·역사화하며 행동을 이끌어내는 선동적 미학을 완성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이러한 집단창작 및 집체극 연행이 조직화의 지향성을 단순히 반영하거나 표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노동자 대중이 함께 구호를 외치며 율동과 합창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현장에서 변혁적 노동자 주체와 전국적 연대 조직을 실제로 구현해냈다는 사실이다. 전국노동자문학회가 보여준 문학 양식의 확장과 탈상품화의 시도는 공동체적 인식에 기반한 노동자 조직화의 한 형식이었고, 문학의 생산·유통·향유의 전 과정을 노동자 민중 스스로 쟁취한 실천이었다. 이처럼 전국노동자문학회의 결성은 문학을 집합적 운동의 매개로 전환해낸 ‘조직화’를 통해, 민중이 문학의 주체가 되는 ‘문학의 민주주의’를 성취해 낸 순간으로 의미화될 수 있다.

부록

<발굴자료> “현장 문예 운동을 조직해 나가자”, 전국노동자문학동아리대동제 팜플렛, 1989.7.

한동안 증권 바람이 불면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을 허탈하게 만들더니, 요즈음은 부동산 투기가 하늘 끝 모르게 치솟아 집없는 사람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전체 인구의 불과 5%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체 토지의 약 8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이 작년 한 해 동안만 가만히 앉아서 벌어들인 돈이 전체 노동자들이 한 해 동안 땀 흘려 벌인 전체 임금의 반에 가깝다고 하니 정말 입이 딱 벌어질 지경이다. 그러니까 임금 인상 투쟁이라는 것이 사실상 깡통 속의 바람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왜 노동을 하는가? 물론 인간은 노동을 통하여 가치를 창조해 나가고 삶의 보람을 느끼는 바도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가치란 결국 돈으로 환원되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 노동을 한다고 하여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통계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성실하고 평범한 노동자가 열심히 일하고 저축한 결과와 불로 소득 계층이 일정한 자본을 부동산 등에 투기하여 벌어들인 결과의 엄청난 차이를 무엇으로 설명해야 좋을까?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불가불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측면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모든 복잡한 요소를 일단 제외하고 중심적인 골격만 살펴보자면 그 대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즉, 우리 사회는 기본적으로 노동자보다는 자본가의 계급이익을 지켜주기 위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공권력’

으로 위장되어 있는 경찰력의 폭력, 기업가에 의해 동원된 구사대의 폭력, 그들의 주장만을 충실히 토해 내는 언론의 횡포 등이 바로 그런 성격의 구체적 표현이다.

이러한 동물적이고 구체적인 얼굴을 분칠해주고 이해할 수 없도록 애매모호하게 꾸며주는 것이 바로 문화적 장치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문학이라는 것은 두 말 할 필요도 없다.

처음 문학을 시작하는 사람은 노동자권 일반인이건 상관없이 중앙 문단에 등단하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삼는다. 따라서 대부분의 초심자들은 중앙 문단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억지로 내고 게다가 그럴 듯하게 흉내내기조차 서슴지 않는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자본가들의 이익을 지켜주는 문학, 즉 지배 문학에의 굴종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먼저 문학의 중앙 집권제적 권위를 끊임없이 부수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한두 사람의 훌륭한 노동자 작가가 탄생한다는 것은, 물론 그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 자신과 더불어 전체 노동자의 삶과 의식에 보탬이 될 때에야 비로소 가치가 있다. 문예 운동의 조직화, 집단화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중앙의 몇몇 노동 대중 잡지(문예지를 포함하여)가 실패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교훈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대중 운동은 바로 대중 속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현장 문예 운동의 필요성이 절감되고 문예 사업, 문예 전선의 욕구가 증대되는 현 시점이 바로 절호의 기회이다.

그러기 위해 중앙 문단과 중앙 문예지에의 관심을 과감히 청산하고 현장 동지들과 폭넓은 문학 모임을 만들고 거기에서 좋은 문집을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

스스로 쟁취하지 않으면 아무도 주지 않는다는 교훈을 명심해야겠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고은 외, 『詩人』2, 시인사, 1984.

민족문학작가회의, 『민족문학회보 창간호』, 198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한국민주화운동사 3』, 돌베개, 2010.

신경림 외, 『詩人』1, 시인사, 1983.

전국노동자문학회 대표자회의 엮음, 『역사는 한사코 나아간다』, 갈무리, 1998.

편집부 엮음, 『노동자문예운동』, 개마고원, 1990.

『고대신문』, 『주간경향』, 『한겨레』, 『창작과비평』,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2. 단행본

가라타니 고진, 조영일 역, 『근대문학의 종언』, 비고, 2025.

권형철, 『한국변혁운동논쟁사』, 일송정, 1990.

김영수, 김원 유경순, 정경원, 『전노협 1990-1995』, 한내, 2013.

츠베탕 토도로프, 최현무 역, 『바흐쥘 : 문학사회학과 대화이론』, 까치글방, 1987.

박상은, 『한국 현대연극과 현장성의 미학』, 역락, 2024.

월터 J. 옹, 이기우·임명진 역,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2004.

와타나베 나오키, 『임화 문학 비평』, 소명출판, 2018.

장성규, 『문학의 민주주의 : 구로노동자문학회 소사小史』, 역락, 2025.

정이담 외, 『문화운동론』, 공동체, 1985.

- 정한용 편, 『민족문학 주체논쟁』, 청하, 1989.
- 채광석, 『채광석 전집5-민중적 민중문학론』, 풀빛, 1989.
- 최진석, 『민중과 그로테스크의 문화정치학 미하일 바흐친과 생성의 사유』, 그린비, 2017.
- 편집부, 『선전선동론』, 지양사, 1989.

3. 논문

- 김영희, 「90년대 문학의 밤과 프롤레타리아의 시 : 일상/투쟁의 서사와 훼손된 육체를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27권 3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19, 85-117쪽.
- 김정훈, 「단편서사시의 개념, 대상, 범주 고찰」, 『국제어문』 16권, 국제어문학회, 1995, 325-362쪽.
- 박수연, 「현대시와 몽타쥬—김정환의 시를 중심으로」, 『비평문학』 18호, 한국비평문학회, 2004, 201-221쪽.
- _____, 「개체들의 공동체 : 한국문학과 진보」, 『어문연구』 122권, 어문연구학회, 2024, 411-440쪽.
- 박민규, 「해방기 북한의 문예대중화 운동과 시론」, 『한국근대문학연구』 13권 1호, 한국근대문학회, 2012, 343-378쪽.
- 박지영, 「『현장』의 노래, 『광장』의 시 : 1980~90년대 초반 노동자문예운동과 시쓰기」, 『상허학보』 50권, 상허학회, 2017, 147-193쪽.
- 송기한, 「『단편서사시』의 대화적 담론 구조」,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2권,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1, 115-137쪽.
- 심선옥, 「1980년대 시 동인지 운동과 ‘5월시」」, 『상허학보』 50권, 상허학회, 2017, 453-489쪽.
- 윤여탁, 「해방정국의 문학 대중화 운동의 의의와 성과에 대한 연구」, 『선청어문』 18권,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1989, 445-472쪽.
- 이영미, 「한국 근·현대 예술운동의 대중화론, 그 쟁점과 허실」, 『민족문

- 화연구』 61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3, 407-478쪽.
- 이종구, 심상완, 이상철, 「일본계 외자 기업의 공장철수에 대한 한일 노동자 풀뿌리 국제연대 : 1989년 수출자유지역 노조의 일본 원정투쟁 사례」,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33호,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7, 103-137쪽.
- 정혜진, 「고정희 여성해방시의 집합적 형식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5.
- 조은정, 「해방기 문화공작대의 의제와 성격」, 『상허학보』 41권, 상허학회, 2014, 243-281쪽.
- 천정환, 「그 많던 ‘외치는 돌멩이’들은 어디로 갔을까」, 『역사비평』 106호, 역사비평사, 2014, 173-205쪽.
- _____, 「1980년대 인문사회과학서점의 역할과 문화사적 위상」, 『기억과 전망』 53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25, 162-203쪽.
- 허민, 「민주화 이행기 한국소설의 서사구조 재편 양상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 허요한, 「『노동해방문학』의 성격과 ‘노동해방문학실’의 문예조직운동(1) 보고문학」, 『구보학보』 35호, 구보학회, 2023, 511-566쪽.
- _____, 「박노해 민중시의 전개와 전위성 연구」,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과 박사학위논문, 2025.
- _____, 「잡지 『노동해방문학』의 노동자문학회 시 연구」, 『반교어문연구』 71호, 반교어문학회, 2025, 251-282쪽.

<Abstract>

A Study on the Formation of the National Workers'
Literary Association and Collective Creative Labor
Poetry in Laborer Literary Movement

Heo, Yo-Han^{*}

This study examines cultural subjectivity formation within the Korean working class through the National Workers' Literature Association (Jeonguk Nodongja Munhakhoe) in the 1980s-1990s, focusing on the intersection of politics and art. This subaltern writing disrupted the bourgeois literary system, navigating internal tensions like creative stagnation caused by conscious workers becoming union executives. Tracing “national”(jeon-guk) as a transformative signifier after 1987, the paper utilizes newly discovered pamphlets to investigate the 1989 First National Labor Literature Club Festival(Daedongje), which forged a nationwide anti-capitalist network.

Furthermore, it analyzes the Masan Club's short epic poem “Crossing the Blue Waves of the Hyunhaetan” to define its agitational nature, which utilized montage to insert struggle-site voices into the narrative of worker “Jeong-sun,” inheriting the KAPF lineage. It also examines the Bucheon Group's collective play “Into Ten Million Flames,” demonstrating how poetry was remediated into a polyphonic performing art integrating traditional percussion(pungmul), songs, and slogans. Ultimately, these practices represent avant-garde labor art that dismantled

* Academy of East Asian Studies, Sungkyunkwan University.

cultural hierarchies, performing a strategic agitation urging the construction of the National Council of Trade Unions(Jeonnohyup).

Key Words: Workers' Cultural and Artistic Movement, Workers' Literature Association, National Workers' Literature Association, Working-Class Poetry, Popularization of the Labor Movement

■ 논문접수 : 2026년 07월 26일

■ 심사완료 : 2026년 08월 09일

■ 게재확정 : 2026년 08월 09일